금주의 법구-〈법구경〉
절제할 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다.
탐욕과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을 고통받지 않게 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0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7월 5일)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설정 스님 사퇴 '초읽기' 종정 교시 "용퇴 존중"

차기원장 선출로 갈등 예상… 내홍 장기화 조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설정 스님은 7월 27일 기자회견서 "종도 의견을 수렴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까지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등을 통해 8월 16일 소집되는 중앙종회 임시회 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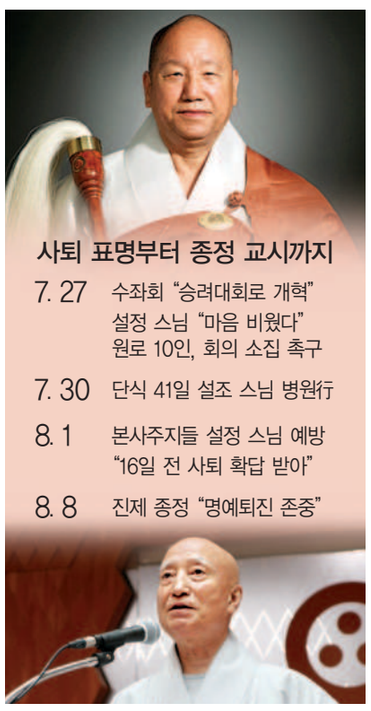
특히 종단 법통의 상징이자 정신적 최고 지도자인 종정 진제 스님이 8월 8일 내린 교시에서 "설정 스님은 항간에 제기된 의혹에 사실유무를 떠나 종단 화합과 안정을 위해 용퇴를 거듭 표명했다. 종단제도권서 엄중하고도 질서 있는 명예로운 퇴진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사퇴의사를 존중하면서 설정 스님의 구체적인 사퇴시기 조율만 남은 것으로 예상된다.

설정 스님의 공식적인 사퇴 선언은 중앙종회 임시회서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서 6~7일경 특별담화를 통해 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건강악화와 8일 소집 예정이던 원로회의가 오는 22일로 미뤄지면서 중앙종회 임시회 당일 신상발언을 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쏠린다.

7월말부터 감지된 용퇴론

설정 스님의 용퇴론은 지난달 27일 갑자기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날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단 20명이 설조 스님 단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승려대회를 통한 개혁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면서부터다. 그러자 설정 스님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길을 진중히 모색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단식 중이던 설조 스님을 찾아가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저녁 원로의원 10인이 총무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30일에는 설조 스님이 단식 41일째 병원에 이송되고, 원로회의 소집 일정마저 앞당겨지면서 설정 스님 용퇴론이 한층 거세졌다. 8월 1일에는 용퇴론에 방점이 찍혔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설정 스님을 예방해 즉각적인 사퇴를 권하자 설정 스님은 "16일 중앙종회 임시회 전에 용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표명부터 종정 교시까지

- 7. 27 수좌회 "승려대회로 개혁" 설정 스님 "마음 비웠다" 원로 10인, 회의 소집 촉구
- 7. 30 단식 41일 설조 스님 병원行
- 8. 1 본사주지들 설정 스님 예방 "16일 전 사퇴 확답 받아"
- 8. 8 진제 종정 "명예퇴진 존중"

설정 스님 "임시회 前 사퇴"
종정도 명예로운 퇴진 당부
16일 임시회 신상발언 관심

전국승려대회 23일 예고에
총무원장 퇴진 찬반 여론이
세력다툼으로 번지는 형국

이런 가운데 설정 스님은 8월 9일 신임 총무부장에 성문 스님, 기획실장에 진우 스님을 임명했다. 사퇴의사를 표명한 설정 스님의 갑작스런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맡을 인물을 선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승가대 총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성문 스님이 총장직을 사임하고, 현재 임기마저 불확실한 총무부장을 수락했기 때문이다.

설정 스님이 사퇴하면 종단은 종헌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궐위 60일 내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때까지 권한대행은 총무부장이 맡는다. 다만 올해는 11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10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총무원장선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승려대회 최대 분수령

이처럼 설정 스님의 사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는 논란의 발단이 된 설정 스님 친자의혹 사실 여부보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방법을 두고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혹 규명으로 시작된 총무원장 퇴진 찬반여론이 세력다툼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의 모임'과 전국선원수좌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은 오는 23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현재 승려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상임추진위원장으로 원인(청정승가탁마도량 상임대표) · 퇴휴(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 월암(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스님을 추대했다. 이들은 "전 종도들의 참정권을 되찾아 승가본연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권승들이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종헌종법을 개정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고자 한다"고 승려대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8월 1일 기자회견서 "일부세력이 개최하려는 승려대회는 인정할 수 없다. 적극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정 진제 스님도 교시에서 "우리 승가는 율장 정신을 받들어 종헌을 준수하고, 종헌종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과 국민여망에 부응해 여법하게 선거법에 의하여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 스님의 이 같은 교시는 직선제를 주장하는 승려대회를 인정하지 않고, 현행 선거법을 통한 총무원장 선출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향후 소집되는 중앙종회와 원로회의 입장도 진제 스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종단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조계종 사태는 23일 열리는 전국승려대회가 최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승려대회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와 같은 초법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다 인정받지 못할 경우 세력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양상이어서 종단 위신을 가린 먹구름이 걷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마당 물놀이로 폭염 'OUT' 사찰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경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풀장이 있는 조계사 여름 불교학교 –아이 좋아! 물놀이 하자!'를 개최했다. 이번 여름불교학교에는 유래없이 29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 뒤편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즐거워 하는 모습이다. 한편, 조계사 외에도 서울 화계사, 청주 용화사 등이 경내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노덕현 기자

"판문점 선언 법등 삼아 통일 실천을"

조계종 · 조불련, 광복 73주년 8.15남북공동발원문 채택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8월 15일 남북공동으로 발표

남북 불교도들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광복 73주년을 맞이해 북측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와 8.15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민추본과 조불련은 공동발원문에서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짚고, 변함없는 통일 의지를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남북불교도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채택으로 민족화합의 새 역사, 공동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 핵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에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온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고 상찬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의 실천은 곧 화해와 화합, 평화와 평등이며 자타불이"라고 강조한 남북불교도들은 "판문점 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등으로 삼고 실천행에 떨쳐나서겠다"고 발원했다.

8.15 광복을 계기로 남북공동발원문이 처음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2014년 이후에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번 8.15 남북공동발원문은 4년 만에 채택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편, 발원문은 8월 15일 열린 남북불교동시법회에서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템플스테이 '문화소외계층' 함께 한다

문화사업단, 법주사 · 불국사 등서 '나눔 템플스테이'

보호관찰 청소년, 도박중독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불교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법주사, 불국사, 화계사 등서 '나눔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법주사와 불국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화계사와 길상사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도박 중독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보호관찰소 청소년과 도박 중독자를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는 자연에서 이뤄지는 문화 체험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내면 치유와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는 전통문화 체험 활동이 포함돼 있어 한국문화 이해와 원활한 사회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www.1027beopnan.kr

제2회 10.27법난 문예공모전

2018.6.15금 - 2018.9.7금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총무원 사회부 · 불교신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개요
- 공모부문 : 시 · 산문 · 만화
- 공모내용
  - 시 : 2편이상(편당 분량 제한 없음)
  - 산문 : A4, 4장 이상 (종류 : 수필, 기행문, 콩트, 주장글 등)
  - 만화 : 1편(A4, 4컷 또는 8컷)
- 응모기간 : 2018. 6. 15(금) ~ 9. 7(금)
  ※작품접수(우편 혹은 홈페이지)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모전 참고목록
- MBC 10·27법난 30주년 특집 다큐 '진실과 화해의 길을 찾아' 2010년 10월 27일 방영)
- 10·27법난 자료집(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위원회)
- 10·27법난의 진실(유응오 저, 화남출판사)
-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www.1027beopnan.kr

시상
- 시상인원 : 총 24명 이내 선정
- 시상금액 : 총 2,700만원 상당

구분	시상수	부상
대상 (총무원장상)	3편 (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총무원장상)	3편 (부문별 각 1편)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우수상 (동국대학교총장상)	6편 (부문별 각 2편)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불교신문사장상)	12편 (부문별 각 4편)	상장 및 상금 50만원

접수방법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02-730-4489)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1027beopnan.kr/) / 우편(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접수 : 응모하기 메뉴에서 작품 파일 등록
  - 우편·방문 접수 : 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2층 1027법난 문예공모전 담당자 앞
- ※ 만화의 경우 원본 추가 접수

문의
공모전 담당자 이경민 : 1027contest@naver.com , 010-2771-0002

방재사업 공사비 대납 논란에 "개선 노력"

조계종 · 문체부, 문제 지적한 방송보도에 입장

일부 사찰서 방재 시공업체에 공사비 대납케 해 논란 불거져
"책임 통감, 특별점검반 구성"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히 조사
위반 사실 발견 시 국고 환수도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전통사찰 방재사업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방송보도에 대해 조계종과 문체부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8월 1일 문화부장 종민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일부사찰의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수사당국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종단 소속 사찰의 일부에서 자부담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다만 총무원이 문제 사찰에 대납 받은 공사비를 공탁하라고 지시한 공문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은 "수사 대상 사찰에 공문을 보내 대납 받은 공사대금을 공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종합적인 점검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조계종은 "문체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현황과 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튿날 입장을 발표, "방재시스템 구축비용 중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의 미이행, 부실한 시스템 상태, 공사비의 과다 책정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조치할 계획"이라며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 일제히 점검 △방재시스템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는 전면적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 투명하게 추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1개 사찰당 평균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사찰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현재 사법당국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자체를 통해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운사 주지후보 자현 스님 당선

산중총회서 총 54표 얻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 주지후보에 자현 스님(前봉정사 주지 · 사진)이 당선됐다.

고운사는 8월 9일 경내 선체험관서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로 자현 스님을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97명 중 89명이 참석했으며, 기호 2번 자현 스님은 54표를 획득했다. 경쟁후보인 기호 1번 호성 스님은 35표를 얻는 데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전달받은 자현 스님은 "앞으로 여러 어른 스님들을 모시고 고운사를 수행정진의 교구, 모범적인 수행도량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량 건축불사뿐만 아니라 인재불사에 초점을 맞춰 교구를 운영하겠다. 교구 대중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현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14~16대 중앙종회의원과 16대 중앙종회 전반기 부의장, 봉정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1999년 녹취, 도현 스님과 만든 허구"

'설정 스님 친자의혹' 친모 기자회견서 밝혀

"도와준다는 도현 스님 만나 살 붙여 수차례 걸쳐 녹음"

지난달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1999년 설정 스님 친자의혹을 받는 전○경 씨 친모인 김○정 씨와 나눈 대화라고 주장한 녹취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 씨가 "해당 녹취는 도현 스님과 함께 만든 허구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8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조계종 교권자주위원회 의혹규명위원회에 출석해 친자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소명한 뒤 2층 회의실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 씨에 따르면 도현 스님이 공개한 1999년 녹취는 김 씨와 도현 스님이 함께 허구로 작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김 씨는 당시 딸 전○경 씨의 입양문제로 인해 입양을 주선한 설정 스님을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설정 스님은 암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김 씨는 도현 스님과 연락이 닿아 문제해결을 도와주겠다는 스님의 말에 하와이로 향했다.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김 씨. 당사자인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김 씨는 "도현 스님 자문을 받아 거짓이야기를 만들고, 살을 붙인 뒤 수차례에 걸쳐 녹음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뭐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을 믿었다. 그럼에도 스님은 그 녹취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인양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녹음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씨는 "도현 스님은 녹음의 목적이 세상에 퍼뜨리려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걸 알았지만 내 문제 해결에만 혈안이 됐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또한 설정 스님에게 제기한 친자인지 확인소송이 도현 스님의 제안에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은 과거 어느 거사와의 사이에서 잉태된 생명이다. 설정 스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당시 저의 간청을 받아들여 입양을 도와주신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정 스님은 8월 7일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한 교수 연구실서 유전자검사를 위해 구강 점막세포를 채취했다. 이날은 설정 스님이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로부터 유전자 감정일을 지정받은 날이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말의 힘과 구업의 무게

처처에서 진실공방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공방에서 어느 한 쪽은 분명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자기 이익과 조직의 권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분노의 말 악구를 당연시하여 상대를 해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짓정보와 가짜뉴스가 난무하는데,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여 구업을 짓는 탈진실화 현상입니다.

구업(口業)은 거짓말(妄語), 교묘히 꾸미는 말(綺語), 이간질(兩舌), 분노의 말 악구(惡口)입니다. 구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전에서는 일러주고 또 일러줍니다. 부처님 본생담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옛날 카샤파 부처님 시절에 범패를 잘 부르는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범패를 잘 부르지 못하는 노 비구를 조롱했다. '스님의 음성은 개 짖는 소리와 같습니다.' 젊은 비구는 노 비구를 조롱한 과보로 개 몸을 받았고 이제 청정한 계행을 지녀 해탈을 얻게 되었느니라."

<현우경 사미균제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착한 말은 선업의 힘으로, 악한 말은



구업 그림 · 조향숙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거나
축생 · 지옥에 떨어지기도
이웃 살리는 망어 '개차법'

악업의 무게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매일 많은 말을 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남의 흉을 보고,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공방을 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구업을 짓습니다. 자기 자랑도 해로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업을 짓더라도 거짓말을 꼭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거짓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깡패들이 여학생을 쫓고 있는데 여학생을 숨겨주고 깡패들에게는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면 이것이 지범개차(持犯開遮) 또는 개차법(開遮法)입니다. 계율을 지킬 수 없는 경우 허용한 후에 다시 막는 양심의 자리 보살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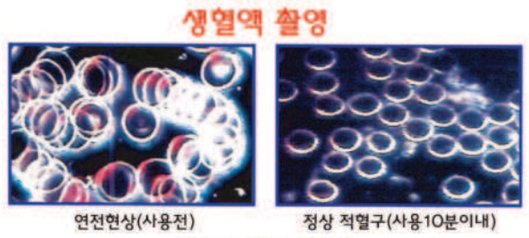
5계의 불망어계로 구업을 짓는 해로운 말을 다스려 바른 말(正語)을 하면서, 무재칠시의 언시와 사섭법의 애어를 몸에 배이도록 실천해야 합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口是禍門)'를 '입은 복의 문이다(口是福門)'로 바꿉시다.

바른 말은 바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구업을 참회하는 '정구업 진언'을 늘 암송합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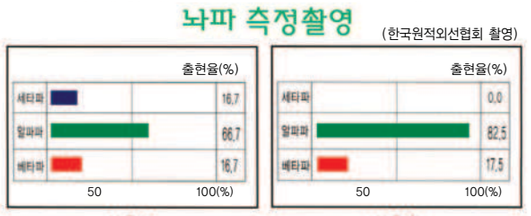
BLOOD MATE® 비누 한 번으로 혈액 건강! 세포 건강!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41년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 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지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적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 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청년 대학생 위한 포교대축전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 개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월 30일까지는 신행UCC공모전
김제동 강사로 청년명사특강도
우정총국마당서 불교문화체험
포교원 "온라인 포교채널 확산"

청년대학생들을 불교로 이끄는 포교대축전이 열린다. 유튜브 등을 활용한 UCC신행공모전을 비롯해 방송인 김제동 씨가 진행하는 명사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눈길을 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이하 대불련)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 이하 대불청)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신행축제는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함께 모여 소통과 교류, 포교의 장을 통해 불자로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불안과 경쟁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행축제는 청년토크(청년대학생을 위한 명사특강)와 불교문화체험, 신행UCC공모전으로 진행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년대학생을 위한 명사특강'이다. 10월 6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 특강은 힐링멘토로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 씨를 강사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대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청년불교문화체험을 통해 청년불자뿐만 아니라 이날 참여한 대학생들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인근 우정총국 앞마당에서는 대학생들이 불교 수행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다라스크래치 사경, 레고 부처님 만들기, 360VR을 통한 사찰체험, 걱정인형만들기, 청년대학생 신행상담 등 청년대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다양한 체험 및 신행상담부스가 운영된다.

또 9월 30일까지 신행UCC공모전도 진행된다. 이번 신행UCC공모전은 그동안 동영상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UCC의 개념을 보다 넓은 의미로 적용한다. 사진, 애니메이션, 플래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년홍보사이트 'likebuddha.net'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우수작은 10월 6일 '청년대학생 신행축제'에서 시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포교콘텐츠를 SNS로 홍보하는 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청년대학생들이 생산한 다양한 신행콘텐츠에 해시태그(#likebuddha, #ilikeBuddha, #부처님같이, #붓다로살자)를 붙여 개인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우수참여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그동안 불자대학생으로서의 자존감 상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학 내에 불교동아리가 줄어들고, 불교는 고리타분한 종교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종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환영했다.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불교 신행의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며 "또한 모바일 세대 청년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온라인 포교채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불자장병·대학생 이색 콜라보

대불련 '영 부디스트 캠프' 성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양희동, 대불련)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 '즐겨요! 청춘을! 경주를!'을 주제로 경주 황룡원 일원에서 '영 부디스트 캠프'를 개최했다.

1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육군 제9보병사단 내 불자 장병 20명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불자장병들의 대불련 캠프 동참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와 대불련이 청년 불자 포교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불자장병들이 전역후 신행활동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종병들은 대불련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둘째날부터는 옛 황룡사 터에 건립된 황룡사 역사문화관과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월정교 등 경주의 역사유적을 탐방했다.

양희동 대불련 회장은 "새로이 만난 도반들과 함께 신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보고 듣고 배웠다. 함께 청춘의 꽃을 피우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지옥고 겪는 쌍용차 해고자 위해"

조계종 사노위, 8월 2일 폭염 속 조계사 일대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8월 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을 출발해 중구 덕수궁 앞 대한문 분향소까지 쌍용자동차 부당해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이날 사노위원 스님 등을 비롯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 이하 쌍차노조), 콜트콜텍, 파인텍 등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조합, 시민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행진은 체감온도 39.6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및 사측에 30번째 희생자 故김주중 씨 49재인 8월 14일 전까지 국가폭력사과, 손배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다.

김득중 쌍차노조 지부장은 "양한웅 집행위원장, 실천위원 스님들과 함께 한지 만 5년이 됐다. 동료들과 매일 아침 남은 119명의 안전과 복직을 염원하는 절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 공식사과 및 명예회복, 국가손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 떠나보낸 30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 문제해결까지 포기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기후변화 막기위해 텀블러 사용을"

불교환경연대, 8월 1일 4차 텀블러 사용 캠페인 진행 눈길

폭염 속에서도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계 활동이 눈길을 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1일 서울 조계사 앞서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4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청소년, 스님 등 다양한 시민층 18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본지와 함께 진행하는 '자고 있는 텀블러를 깨워라' 캠페인은 일회용기나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 텀블러를 사용해 숲 등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텀블러를 함께 나눠 사용하고, 이에 맞춰 환경기금을 후원해 다른 환경보존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캠페인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업로드 했다. 서울 최고 기온 40도를 갱신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캠페인에 대해 묻는 행인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불교환경연대 이효상 활동가는 "더운 날씨인 만큼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나 음료를 들고 다니는 시민들이 많았다"며 "무더위는 우리가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이 텀블러 사용에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와 본지가 공동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은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02)720-1654 김지원 수습기자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文정부 나서라"

불교인권위, 8월 7일 '탈북 여종업원' 송환촉구 기자회견

불교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권 당시 벌어진 집단탈북 당사자들의 북송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대표 진관, 이하 인권위)는 '중국 유경식당 여성 12명 송환촉구 기자회견'을 8월 7일 청와대 분수광장서 열고,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 소속 진관·지원·범상·명진 스님과 진철문 인권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인사말 △성명발표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는 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앞서 8월 2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이번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단을 꾸리고, 평양에서 관련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인권위는 북한 불교계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박근혜 前대통령 당시 통일부가 발표한 사실과 달리, 국내외 언론매체를 통해 국정원이 집단탈북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반강제로 납치되다시피 한 종업원들의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인권위는 수감된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 양심수들을 석방해 북송을 돕는 일에 앞장서 왔다. 인도적인 차원서 12명의 종업원들도 가족들 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송환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인권위 사무총장 범상 스님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기획탈북' 사건 당사자들 송환이 첫걸음"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원 명진 스님은 "여종업원들 송환을 계기로 판문점선언을 실천하고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제8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 회향

한미청소년 불교문화연수단은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이 주최하고,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대표 정범)가 주관하는 한미 청소년 불교문화연수 활동을 7월 23일부터 8월3일까지 진행했다.

불교문화연수단은 단장 정범 스님을 중심으로 연수단장 혜원 스님, 부단장 향일 스님을 비롯해 한국 12명, 뉴욕 3명, LA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한국사찰 달마사에서 숙식하며 LA 시내 탐방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고, 테하차피 태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며 발우공양과 사찰 예절 등을 배웠다.

또 UCLA, 서던캘리포니아대 등 명문대 탐방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으며, 그리피스 천문대, 게티 박물관 등을 방문해 기술과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특히 혜원 스님과 디트로이트 젠센터에서 수행정진 중이던 향일 스님을 비롯하여 LA 전직 경찰관이 합류해 안전을 맡았으며, 현지 달마사 청년회 법우들이 안내를 맡아 청소년들의 연수에 많은 도움을 줬다. 노덕현 기자

2019 불교카렌다 주문제작 접수중!
삼보불교카렌다의 홈페이지에서 E북이나 pdf 카다로그로 카렌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민족의 산하


미소(성 안내는 그 얼굴)


법음이 깃든 산사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세계불교 명찰


심우도

독판(맞춤형) 카렌다 주문제작 접수중!!!
기성 카렌다가 아닌 각 사찰만의 독특한 독판(맞춤형) 카렌다를 제작하시려면 지금 전화주세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 www.samboca.com

Daum 이나 NAVER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클릭하세요.

무더위 이기는 불교계 작은 배려

불교병원 · 복지재단 등 여름 극복 캠페인 전개

동국대 병원 운전사에 생수 제공
사회복지재단 무료 냉동고 운영
서울노인센터 질환 예방캠페인
종로노인복지관 무더위 쉼터 개관

노덕현 기자 · 김지원 수습기자

무더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시원한 물 한모금과 함께한 따뜻한 관심이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불교계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자비보시행이 눈길을 끈다.

동국대 일산병원(병원장 조성민)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병원 정문 앞에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시원한 얼음생수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송해주는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안전운전을 기원하고자하는 바람에서 시작됐다.

생수 나눔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직원들이 생수를 전달했다.

택시를 운행하는 김모 기사(54)는 "무더운 날씨에 환한 웃음과 뜻밖의 얼음생수를 받으니 이 일이 새삼 보람이 느껴진다"며 "시원한 물을 마시니 잠시나마 더위가 잊히는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조계종 전법회관 1층에 무인냉동고를 설치해 택배기사 등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시원한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은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으며 총 2000병의 음료가 전달된다.

무인냉동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용빈도 증가 추세로 하루 평균 100병 이상의 음료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와 관련해 택배기사 등에게 SNS를 통해 감사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시원한나눔' '#오늘도 고맙습니다' 등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사회복지재단 카카오톡플러스친구(@jabinanum)나 문자(010-5826-5101)로 내용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광동제약 음료 1박스 등이 제공된다. (02)6334-2216



동국대 불교병원 직원들이 병원을 찾은 택시 기사들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센터장 희유)는 서울 지역 독거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 측은 '여름에는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요' '냉방병 예방위해 실내온도는 26~28도' '하루 2리터 수분섭취로 더 건강하게' 등 피켓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폭염주의보가 내릴 시 수박주스 등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도 8월 1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에서 1일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종로노인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영화 1편을 상영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타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대폭 증가한 상태다.

8월 1일에만도 76명의 어르신들이 쉼터를 찾았다. 이와 함께 산하 무학센터도 매주 토요일 영화 2편을 상영하는 것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관장 정관 스님은 "무더위 속에 소외계층들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사찰음식, 식문화 혁신 프로젝트 동참

불교문화사업단, 서울 식생활센터서 10월까지 강의

한국불교의 대표 문화로 자리 잡은 사찰음식이 식문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오는 10월까지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가나다 밥상 프로젝트'와 '맛동 아카데미'서 사찰음식의 가치와 조리법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실시한다. '가나다 밥상'은 음식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나누고, 식재료와 음식에 대한 관점을 돌아보는 식문화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문화사업단은 이 프로젝트에서 세 차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4일에는 장안사 주지 성견 스님이 '마음으로 짓는 사찰음식-스님들의 여름 수행 부양식'을 주제로 첫 강의를 마쳤다.〈사진〉 문화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사전예약뿐만 아니라 당일 신청자가 몰려 사찰음식 인기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성견 스님은 사찰음식의 가치와 특징을 설명하고 '방울토마토 장아찌' 조리방법을 시연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화사업단은 오는 8월 30일과 10월 25일에도 '마음으로 짓는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9월 4일과 11일에는 '맛동 아카데미'서 사찰음식 체험이 진행된다. 070-4285-3981

윤호섭 기자

불교 문인 등용문 '제3회 법계문학상' 공모

오는 10월 31일까지… 대상에 2000만원 상금

불교 문학 인재 발굴을 위해 제정된 법계문학상 공모가 이뤄진다.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제3회 법계문학상을 공모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공모분야는 장편소설과 장편동화 부문이며,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재의 창작 작품이어야 한다. 장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장편동화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다. 응모자격은 신인작가나 등단 7년 이내 작가다.

대상 수상작 1편에는 2000만원 및 상패가, 가작 2편에는 500만원 및 상패가 수여된다.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으로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 공모를 통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070-8880-8202

신성민 기자



수능 D-100 무더위에도 母情佛心

8월 7일 전국 사찰에서는 수능 D-100일 학업성취 기도가 열렸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7일 오전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학업원만성취 100일 기도에 입재했다. 기도는 수능시험일인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수능시험 한달여 전부터는 3000배 철야정진기도와 촛불기원법회, 천도재, 특별기도 등이 진행된다.

이날 입재식에는 1000여 불자들이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팔공산 갓바위, 서울 조계사 등 전국사찰에서는 학업 성취 발원 기도가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이젠 유튜브서 생활참선 만나요

불교인재원 사상 첫 유튜브 강좌 개설

무료 제공 후 현장실습 유도
강좌선 1:1면담, 과제 부여
청년층 수강지원 등 보급나서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이 불교계 사상 최초로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를 활용한 참선 강좌를 진행한다. 입문과정을 중점적으로 청년층이 보다 많이 생활 속 참선을 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불교인재원이 8월 3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전법회관 지하1층 교육관에서 생활참선 입문 8기 과정을 개설한다. 11월 14일까지 총 13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영원한 대자유와 행복의 길, 화두 공부하는 법 등 일반인들이 쉽게 참선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입문과정 수료자가 수강하는 심화과정은 8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6주에 걸쳐 진행된다. 수료자에게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이 주어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계에서 이례적으로 선 강좌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것이다. 매주 강좌 후 내용이 정리돼 유튜브에 업로드 된다. 불교인재원이 사용하는 교재를 가지고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함께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유료 수강생의 경우에는 온오프를 넘나드는 수강이 가능하다. 유튜브에 제시되는 월 1회 과제 및 매일 5분 좌선 실천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강좌서 진행되는 순례 및 1박2일 수련회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엄상호 이사장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바쁜 생활로 인해 참석하기 힘든 불자들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를 활용해 참선의 진면목을 알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불교인재원 홈페이지(www.injaewon.org)를 참조하면 된다. 1661-1108

노덕현 기자

"라오스 수해 이재민에 자비 손길을"

(사)로터스월드, 7월 25일부터 라오스 이재민 지원캠페인

(사)로터스월드가 라오스 댐 붕괴사고 이재민을 위해 후원금을 모연한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아따쁘주 댐 붕괴사고로 고통받는 라오스 주민들을 위해 후원 모금 캠페인을 7월 25일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후원 계좌(우리은행 1005-702-694215, 예금주:(사)로터스월드)에 입금, 또는 전화로 문의(02)725-4277)하는 방식이다. 후원금은 식량 등 구호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불교국가 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로터스월드는 "한 순간에 마을은 물에 잠기고, 돌아갈 집이 없어진 라오스 이재민들은 당장 하루를 버틸 끼니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필요한 구호식량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더 라오샨 타임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이 무너지면서 인근 아야태, 힌라드, 마이, 타셍찬, 타힌, 사몽 등 6개 마을이 물에 잠기고, 약 1300가구 · 6600명 이상 이재민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댐 붕괴 원인조사 및 책임규명이 진행 중이다.

김지원 수습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공모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논문집『한마음연구』**를 발행합니다.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 100년을 위하여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본격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불교학과 관련하여 뜻있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응모 자격 :** 박사과정 수료 이상 / 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선정 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대상 논문의 경우『**한마음연구**』논문집에 게재. 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수정 보완 후에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논문집에 게재
- 대상 및 우수상을 받지 못했지만 우수한 논문의 경우, 별도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원고료 400만원 지급]

☞ 묘공학술상과 관련하여 심사규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

- **투고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투고 시기 :** 년 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한마음연구』출간 일정 [2월 28일, 8월 31일]에 따라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일자를 결정
- **투고 자격 :** 불교관련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자
  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
-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계절발표회

- **발표 분야 :** 대행선 혹은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 **시행 :** 1년에 4회, 매 3, 6, 9, 12월의 3번째 일요일 전 금요일 오후 1시~5시
- **장소 :** 한마음 선원 안양 본원
- **초빙 대상 :**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자/제방의 불교학 관련 전문가
- **발표 방법 :** 매 발표회당 2명의 연구자가 논문[초고 가능]을 발표
  대행선 관련 논문과 불교학 관련 논문 각 1편 씩 발표
- **원고료 :** 400만원
-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한마음연구**』에 게재
  ☞ 보다 자세한 것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인재양성 프로젝트

- **대상 :**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및 수료자로 대행선 혹은 불교와 관련하여 학위논문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운영 :** 정기 공부모임[격월 4째 주 토요일], 멘토 시스템
  ☞ 학위 및 연구 논문 주제/초록 발표와 토론, 높은 완성도를 위한 방향의 제시
  ☞ 1년에 6회 [1, 3, 5, 7, 9, 11월 4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선발 시기 :** 매년 3월, 9월 [년 2회]를 원칙으로 함
- **인원 :** 10명 내외
- **특전 :** 참가자에게 학술지원비, 세미나 발표비, 학위논문 작성 지원비 지원
  ☞ 보다 자세한 것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주소 :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 전화 : 031)470-3276, 3277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 www.daehaeng.org

※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음



해인사 승가대학은 8월 4일 경내 구광루 대강의실에서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은 있는가'를 주제로 '성안 스님 배 제2회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결승에 진출한 개밥바라기 팀과 불고장금 팀이 토론하고 있는 모습.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 참가자와 심사위원, 청중들이 시상식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승의 영예를 안은 개밥바라기 팀이 1등상인 가전연상 상장을 받고 있다.



해인사승가대학 후원회가 신입생 학인 10명 전원에게 노트북을 전달하고 있다.

학인 스님 향학열은 폭염보다 뜨거웠다

해인사 승가대학 '성안 스님 배 제2회 토론대회' 결선 현장

합천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은 있는가?"

한 학인 스님은 "유무정이 모두 공하니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했고, 다른 학인 스님은 "기계적 사고 패턴이 과연 언어와 논리를 떠난 깨달음을 인식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논의제일 가전연(迦旃延)의 후예들의 날카로운 논쟁과 질의는 한여름 폭염의 열기보다 뜨거웠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8월 4일 경내 구광루 대강의실에서 '인공지능 로봇에도 불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성안 스님 배 제2회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는 3월 개강 직후 주제를 선정하고 하안거 입재 후 총 16개 팀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총 3라운드를 거쳐 대결을 치렀다. 학인 스님 32명이 전원 참여했으며 개밥바라기, 가야한 호랑이, 사시특식, 불고장금 팀이 마지막 결선 라운드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는 가야산 호랑이와 개밥바라기가 대결했으며 사시특식과 불고장금이 맞붙었다. 최종 결승에는 인공지능에는 불성이 있다는 견해로 토론한 개밥바라기와 불고장금이 올라갔다. 결승전에서는 개밥바라기는 인공지능의 불성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불고장금 팀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개밥바라기와 불고장금은 기조 발표 후 자리에 앉아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개밥바라기는 "인공지능은 지식의 통합과 축적으로 논리적인 해결방안을 뽑아내는데, 그 사고 패턴으로 불성을 알 수 있는가"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불교장금은 과학의 발달로 지식과 논리 사고 패턴까지 뛰어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개밥바라기는 계속해서 "불성은 지식이 아니라 직지인심, 즉 언어를 넘어선 경계에서 깨닫는다. 지식과 논리를 떠나야 한다"며 인공지능에는 불성이 없음 강조했다.

불고장금 팀은 "생명이 있는 유정물과 없는 무정물 모두 성품은 공하며 현재 어느 정도 오온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이뤄진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자의식 발현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은 멘토인 사람의 의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정리했다.

'인공지능 불성 有無' 주제로
학인 전원 참여 한달 간 진행
4일 결선… 개밥바라기팀 우승
학인 간 수준 높은 토론 '감탄'
후원회, 노트북 10대 전달식도

각 팀의 토론 내용을 경청하고 면밀히 분석한 심사위원들은 최종적으로 개밥바라기 팀의 손을 들어줬다. 개밥바리가 팀은 심사 기준인 말하기 원칙에 입각한 입론 형식과 설득력, 질의응답 등 자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팀원 간 협동 능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선원장 효담 스님은 총평에서 "이 세상 두두물물은 불성 아닌 것이 없다"면서 "인공지능의 불성을 묻기보단 '자의식, 자아가 생기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면 더 발전된 방향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나 원타 스님은 "이 시대 현대인의 화두인 인공지능을 불교적 안목으로 해석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적용할 방법을 고민할 시기다. 시기적절하게 좋은 주제로 토론대회를 열었다"며 "스님들은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격려했다.

시상식에서는 논의제일 가전연 존자를 상징하는 가전연상과 상금 200만원을 개밥바라기 팀에 전달했으며, 부루나상과 150만원은 2위 불고장금에게, 공동 3위인 가야산 호랑이 팀과 사시특식 팀에게는 용수상과 마명상,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가전연상을 받은 개밥바라기의 견성 스님(승가대학 2)은 "교리뿐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법을 익혔다"며 "토론 대회를 통해 승가의 경직성이 유연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같은 팀 금강 스님(승가대학 3)은 "토론을 통해 주제 이해가 더 깊이 됐고 사실 운이 좋아 결과가 좋았던 거 같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이 지난해부터 열고 있는 '성안 스님 배 학인 토론회'는 2014년 4월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입적한 해인사 대장경연구원 보존국장 성안 스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안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제39회 졸업생이기도 하다.

사고로 안타깝게 입적한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제39회 동문들과 가족들은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마련했고, 이는 해인사 승가대학 장학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론대회의 상금 역시 성안 스님을 기리는 모임이 마련한 장학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단독 개최 학인 토론대회는 해인사 승가대학이 유일하며, 학인 스님들의 학습, 토론 능력 확대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토론대회에 함께 참여한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 회원들은 1학년 학인 스님 10명 전원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는 현재 전국 불자 640여명이 SNS를 통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첫 주 주말에 해인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이들은 수준 높은 학인 스님들의 토론해 감탄하며 "미래 불교의 희망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최정숙(대구 상인동 · 57)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시대에 맞는 논제로 토론해 더욱 값진 시간이다. 학인 스님들의 공부가 놀랍고 후원회 활동 하고 있는데 보람되고 뿌듯하다"며 "요즘 종단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이곳 스님들을 뵙고 희망을 얻는다. 후원 모임을 통해 꾸준히 응원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원철 해인사 승가대학 후원회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곳에 후원회 회원 60여명이 참여했다. 상상 못할 정도의 의견이 나와서 토론대회 보면서 학인 스님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수업 과정이라 생각한다. 스님들의 활동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대회에는 유나 원타 스님, 해인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선원장 효담 스님, 기획국장 만우 스님과 강원 및 선방 대중, 해인사승가대학 후원회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찰로 명당! 도성속의 숲속

2015년 부천시의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주 변 : 500m 內 서울항동지구, 부천옥길지구, 현대아파트 단지 등 22,000세대 +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02-1, 서울 경계 115m
- 대지 158평, 건물 93평, 사유지처럼 쓰는 땅 400평 이상
- 양도가액 : 35억

연락처 : 010-4500-9095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1〉 애월읍 수산리 대원정사

한 스님 가족 풍비박산낸 4·3 광풍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제주 4·3사건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다.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사태를 비롯해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주민들이 희생됐다. 약 7년여 기간동안 비공식적으로 3만여 제주 주민이 희생됐고, 강경진압에 의해 제주 중산간 마을의 가옥 95%가 전소됐다.

이런 겁화를 불교도 피해가지 못했다. 스님 16명이 죽거나 도일(渡日)·행방불명됐고, 37곳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다. 완전 전소된 곳도 18곳에 달한다. 대부분의 피해 스님들은 사찰 경내에서 총살 당했고,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스님도 있다.

본지 제휴 언론인 〈제주불교〉는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 사찰과 순교 스님들의 업적을 재조사하는 기획연재를 시작했다.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와 제주불교 전문가 한금순 제주대 외래교수가 연재를 맡았다.

이에 본지는 〈제주불교〉의 '4·3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기획 연재를 새로 정리해 게재한다.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를 되짚고, 해결의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제주 애월읍 대원정사 전경. 원래는 원천사였으나 제주 4.3사건이 발발하면서 훼불을 겪는다. 이후 현재 회주인 일조 스님이 1980년 대원정사로 사찰명을 바꿨다.



대원정사 회주 일조 스님이 자신의 과거를 술회하고 있다. 스님도 4.3사건으로 가족을 잃었다.

하귀中 전신 설립했던 아버지
5.10총선 반대로 감옥서 사망
충격으로 원천사서 출가 결심

4.3당시 원천사도 피해 입어
토벌대 의해 고정선 스님 총살

1940년 생인 제주 애월읍 대원정사 회주 보각 일조 스님은 9살 무렵, 제주 4·3의 광기를 아직도 뇌리에 잊히지 않고 고스란히 기억해 냈다. 아버지는 대전형무소에 끌려갔고, 어머니는 2살의 여동생을 등에 업은 채 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게 화근이었다. 경찰이 어머니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자 할머니까지 따라나섰다가 도피자 가족이라고 총살당해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 밖에도 친누나와 셋째 아버지 그리고 삼촌까지, 4·3의 광풍이 스님의 집안에도 휘몰아친다.

"아버지가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을 정도로 이 하귀마을의 유지였죠. 하귀 병풍 내 논 절반이 우리 집안의 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당시 단국대 이사장과의 대학동기 인연으로 현 하귀중학교 전신인 단국중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 시절이 그랬듯 의식을 가진 4·3의 시초가 됐던 5·10총선거 반대로 인해 단국중학교 교장과 선생 등이 경찰들의 수사 선상에 올랐고, 그 가르침을 배운 학생들도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 무렵만 해도 아버지 친구가 경찰의 간부였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장례에 경찰이 만장행렬 보초를 서 줄 정도였다.

하지만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던 시대라 아버지의 삶도 지역 주민의 밀고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된다.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다시 석방됐다 다시 잡혀가 전기고문을 당하는 등 결국 대전형무소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충격과 공포는 트라우마가 됐을 것이다. 시름시름 앓던 스님은 결국 부처님을 의지하게 된다. 지난 15살이 되던 1954년, 4·3에 의해 훼불됐던 수산봉 기슭에 자리한 원천사에서 출가하게 된다.

원천사는 1933년 최청산 스님에 의해 애월읍 구엄리 초입의 원물 지경에 창건되었다. 그러나 4·3이 발발하면서 고인수 스님이 남로당 청년 활동을 했는데 원천사에 은신했다고 한다. 이 사실이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면서 원천사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를 맞게 된다. 다행히도 원천사의 불상과 탱화, 불구는 물론 건축자재도 중산간의 극락사로 옮겨, 겨우 화를 면한다.

하지만 4·3 당시 토벌대에 의해 주지였던 고정선 스님은 총살되었다. 고정선 스님은 불교청년운동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벌였던 이일선, 이세진 스님의 제자이다. 이후 사찰이 재건된 것은 1953년 최청산 스님의 제자였던 방동화, 선두석, 오춘송 스님이 극락사로 옮긴 불상과 불화, 불구 등을 찾아와 현재의 수산봉 위치로 이전하면서이다. 이전할 당시 사명을 원천사로 개명했다. 그럼에도 현재 불상과 불화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당시 한라산 영실은 기도가 영험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지요. 박보현화 보살도 원천사 불상을 등짐에 지고 영실에 가서 모신 후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김 씨라는 사람이 그 불상을 서귀포시 대표 앞바다에 수장시켰다는 소문만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정사에는 원천사의 전해지는 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후 원천사는 1961년에 대한불교법화종에 등록 되었고, 1980년에 이르러 일조 스님이 대원정사로 사명을 개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4·3

대원정사

지역주민과 함께 아픔겪어 현재 재건돼 수락봉에 우뚝

대원정사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수산봉에 위치해 있다. 대한불교법화종 소속이다. 대원정사는 1933년 최청산 스님이 애월읍 구엄리 초입의 원물 지경에 초가 법당 등 세 채의 건물에 원천사로 창건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법주사 구엄포교소로 신고되었다. 1942년 김금륜 스님이 기와 법당으로 증축하고 수산사로 개명하였다. 제주4·3사건으로 사찰 건물이 모두 철거되었고, 불상 및 불구는 물론 신앙 활동의 근거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1953년 최청산 스님의 제자인 방동화 스님, 오춘송 스님, 선두석 스님과 수산리 마을 사람들이 현 대원정사의 위치에 원천사를 재건하였다. 대원정사 사명은 지난 1981년 일조 스님이 바꾸었다.

대원정사가 있는 애월읍 수산리를 비롯해 하귀, 구엄리 등의 주민들은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산으로 올라갔다. 이러한 이력은 애월읍이 제주4·3사건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는 한 원인이 된다. 대원정사의 전신인 수산사도 애월 지역의 피해와 같은 양상 속에 있다.

5·10 총선거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이다. 제주4·3사건은 남한만의 5·10 단독선거 반대, 단독정부 수립 반대를 위한 투쟁이었다.

1948년 3월 3일 5·10 총선거 선거인 등록업무가 개시되자 1948년 4월 3일 제주도는 무장봉기를 실시하였다. 제주도민들은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마을을 떠나 산으로 숨어들어갔고, 무장대는 마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로 선거무효가 되는 일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5·10 총선거로 남한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제주4.3사건은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하여 5·10선거를 거부한 제주도민을 살육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폭거였다.

대원정사는 5·10 총선거 반대 투쟁에 나섰던 수산리 지역주민과 함께 제주4·3사건의 아픔을 이기고 재건되어 오늘 수산봉 자락을 지키고 있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2018년 불교학과 53기 신입생 모집 [2년과정]

불교학과 9월 6일(목) 오후 1시 개강

- 주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통신반 [사이버 강좌 http://cyber.dongsanbud.net]

1년차	과목	① 근본불교 (아함경 2) ② 반야심경 ③ 유식불교 ④ 인도불교, ⑤ 중국·한국불교 ⑥ 법화경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최봉수 교수, 최종석 교수, 김형준 교수, 묘주스님, 최종남 교수, 정병조 교수,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박종 교수
2년차	과목	⑦ 화엄경 ⑧ 정토불교 ⑨ 대승불교와 밀교 ⑩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 1) ⑪ 불교문화와 미술, ⑫ 선불교
	교수진	정엄스님, 김형준 교수, 주명철 교수, 정성준 교수, 이미령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활안스님, 김호귀 교수

■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 (주간반·저녁반·통신반)
■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8년 8월 1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개강 불교다도학과 [9월 4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9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반 [9월 5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반 [9월 8일(토) 오후 2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시로 초의에게 法敎를 청하다



조선 후기 여항시사를 이끌었던 조희룡이 지은 〈일정화영첩〉. 추사의 제자였던 만큼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금강산을 유람하며 느낀 점을 시로 묶어냈으며, 이를 초의에게 보내 그 경지를 점검해줄 것을 청했다.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⑮ 조희룡의 '일정화영첩'

조선 후기 여항시사를 이끌었던 조희룡(趙熙龍, 1789~1866)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초의와 깊은 인연을 맺는다. 원래 그의 집안은 양반 출신이었지만 조부 때부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여항인(閭巷人)들과 어울린 화가이기에 중인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의 자는 이견(而見), 치운(致雲)이요, 우봉(又峰), 철적(鐵篴), 호산(壺山), 단로(丹老), 매수(梅叟) 등을 사용했다. 마치 "학이 가을 구름을 타고 훨훨 날아가듯이 길을 걸어 다녔다"고 할 정도로 병약했다고 한다. 이런 약골임에도 천수를 누렸던 그는 특히 매화를 좋아하여 기벽(奇癖)이라 이를 만하였다. 그가 매화를 잘 그린 것은 이런 매화벽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매화 병풍을 치고, 매화 벼루를 수집해 곁에 놓고 즐겼다고 한다.

무엇보다 그의 예술적 취향은 추사의 문하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발하였다. 개방적인 인품의 소유자였던 추사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교유하였기에 조희룡도 그의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조희룡이 추사체를 본받아 방불한 글씨를 썼던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추사와의 깊은 학연으로 초의를 알게 된 그는 불교에도 친숙한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불로(佛老)라는 호를 사용했던 흔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초의에게 증시첩을 보내 법교를 청했으니 이것이 바로 〈일정화영첩(一庭花影帖)〉이다. 이 첩의 크기는 24.7×13.4cm이며 그가 초의를 위해 지은 총 5수의 시를 묶어 첩으로 완성했다. 겉표지에 초의선사 사수(草衣禪師查收), 철축도인 기(鐵篴道人 寄)라고 쓴 묵서가 있는데, 철축도인은 바로 조희룡의 호이다. 중인 출신이었지만 시·서·화(詩書畵)에 능했다.

특히 시에 밝았던 그는 초의가 1838년경 금강산을 유람할 때 지은 시를 애송했으니 이는 당시 초의와 교유했던 경향의 문사들 사이에서 유행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초의법사께서 금강산을 돌아보시고 쓴 시는 지금 저에게 있으니 때때로 다시 꺼내 읽습니다. 해악에서 돌아 온 후, 처음으로 산을 보는데도 삼매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草衣法師金剛望遊詩 今在余所 時復取讀於海岳 歸來之後 始知爲看山三昧)"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룡의 시와 글씨, 그리고 초의와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일정화영첩〉의 일부 내용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72집을 봉선(封禪)한 일이라
빛나는 옥문갑(玉文匣), 금니(金泥)를 모으리.
홀로 갈성루(歇城樓)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이 묘제(妙諦)를 증명할 이 없어 이것을 기록하여 포연스님(浦蓮上人)에게 보내니 돌려서 초의 선사에게도 보냅니다. 아울러 법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철축도인 고

초의법사께서 금강산을 돌아보시고 쓴 시는 지금 저에게 있으니 때때로 다시 꺼내 읽습니다.

추사 제자로 鮮末 여항시사 이끌어

'佛老' 호로 사용… 불교와도 친숙

초의가 금강산 유람 지은 시 애송

금강산 보고 느낀 것 시로 표현해

시첩으로 묶어 초의에게 보내기도

도道로 향하는 선남 선녀이여,
번뇌와 고통을 없애려고
머리를 조아려 금강저에 비누나.
내 천하의 책을 다 보지 못했으니
누가 장차 이런 경계를 쓸 것인가.
신선의 땅, 부처의 세계를 유생이 올랐지만
스스로 흰 연꽃 피웠다는 소식, 듣지 못했네.
안개 피어오른 바다, 비바람 맞는 게 두려워
신선에게 나루터를 묻는 마음이어라.
패옥 소리 댕그랑 울려도 머물 곳이 없으니
다만 노을 바라볼 뿐, 마음대로 가지 못하네.
큰 부끄러움 일어나도 큰 손으로 쓸 수 없어서
공연히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는 듯하네.
세간의 문자란 오목한 절구 구멍이라.
어찌 모양 밖을 다 들 수 있으리.
만약 천고로 통한 사다리와 배가 있다면
여기에서 공덕을, 황왕을 칭송하리.

행악(海嶽)에서 돌아 온 후, 처음으로 산을 보는데도 삼매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시는 곧 기린훤을 면했을 뿐입니다.

向道善男與善女/煩惱苦趣共欲除/稽首願乞金剛杵/吾生未窮天下書/誰將是境下箋疏/仙都佛界登楮墨/未聞自成白芙蕖/恐被風雨飄烟瀛/可惹遊仙問津情/環珮冷冷無處所/只見雲霞無恙橫/發皇愧無大手筆/空向海內擬響肹/世間文字是臼窠/安能象外可擧悉/若使千古通梯航/功德向此頌皇王/七十二家封禪事/玉檢金泥聚煌煌//

獨上歇惺樓 無人證是妙諦 錄此寄示浦蓮上人轉呈草衣禪師 並請法教

鐵篴道人稿

草衣法師金剛望遊詩 今在余所 時復取讀於海岳 歸來之後 始知爲看山三昧 余詩卽不免麒麟楦耳

초의가 금강산을 유람한 것은 1838년경이다. 두 번째 상경 길에 금강산을 유람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1838년에야 뜻을 이룬 셈이다. 그런데 초의가 금강산에서 쓴 시가 경향의 문사들 사이에서 애송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시에 능했던 조희룡도 초의의 금강산 시를 애송했으며 그 자신도 금강산을 유람한 후에야 산을 보는 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시의 후미에 "초의법사께서 금강산을 돌아보시고 쓴 시는 지금 저에게 있으니 때때로 다시 꺼내 읽습니다. 행악(海嶽)에서 돌아 온 후, 처음으로 산을 보는데도 삼매의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시는 기린훤을 면했을 뿐입니다"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의 시가 기린훤(麒麟楦)을 면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초의의 시를 보고 산을 보는데도 삼매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의 시 또한 겉만 그럴 듯한 것이 아니라 실속이 찬 시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린훤의 유래는 〈태평광기(太平廣記)〉권265 '영천령(盈川令) 경박일(輕薄一)'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기린은 상서로운 동물이다. 당(唐)나라 때 기린으로 분장한 나귀를 기린훤이라고 불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아닌 것을 이른다.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기린으로 분장한 나귀처럼 다른 신분에 따라 정해놓은 법질서가 무너진 것을 이른다.

기린은 남방에서 자란다. 춘추시대 공자는 기린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세상을 주유하던 일을 그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제자를 양성했다. 상서로운 동물 기린은 성인의 출현을 예견하는 상서로운 징후라 여겼다. 그런대 당나라 때에는 나귀를 잘 꾸며 기린처럼 분장한 것을 기린훤이라 불렀다. 바로 가짜인 셈이다. 그러므로 조희룡이 자신의 시가 기린훤을 면했다는 것은 시삼매의 본질을 관통했다는 말이 아닐까.

한편 〈일정화영첩〉은 원래 초의에게 보낸 것은 아닌 듯 한데 이는 "사람이 이 묘제(妙諦)를 증명할 이 없어 이것을 기록하여 포연 스님(浦蓮上人)에게 보내니 돌려서 초의 선사에게도 보냅니다. 아울러 법의 가르침을 청합니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포연 스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첩은 초의에게 법교(法敎)를 청하면서 보낸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첩의 후미에 조희룡의 안목이 유점사를 유람하면서 "천하의 이치가 어느 것이든 무(無)로서 유(有)를 하고 유로서 무를 하지 않음이 없으니 모두 옳습니다. 나는 우선 일어난 것을 이와 같이 보는데 초의법사께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天下之理 何所不有 以無爲有 以有爲無 皆是也 我姑作如是觀 草衣法師正之)"라고 말한 대목이 눈에 띈다.

그의 문리는 이처럼 대오한 경지를 드러냈으니 금강산 유람은 사람의 안목을 넓히기에 제 격이었던가 보다. 아무튼 자신의 경계를 초의선사의 법안(法眼)으로 점검해 달라는 것이니 당시 초의는 인천(人天)의 스승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8학년도 2학기 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Ⅰ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인각 스님	월	편입생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Ⅱ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이기봉 스님	수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조현성 스님	목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최원허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학 개론	심만춘 스님	화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 (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8년 8월 20일 (월) ~ 8월 27일 (월)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1)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4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8년 9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험준한 산길서 내 자신을 마주하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③ 첫 난관 '헨로 고로가시'



12번을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암자 죠렌안(淨蓮庵). 11번 절에서 12번 절까지 약 1/3지점이다. 11번과 12번 순례길은 산등성이 3곳을 넘어야 하는 험로다.

11~12번 사찰로 이동하는 순례길
산등성이 3곳 통과해야 하는 험로
걸음마다 편안함 안주한 자신 반성

오셋타이 등 순례자 배려 문화 눈길
현지인들 보시의 감사함에 기도한다

시코쿠 순례의 오헨로상(순례자)들의 아침은 빠르다. 하루에 평균 30km 가까이 걸어야 하는데다가, 오후 5시면 사찰들의 업무가 끝나니 그 전까지는 참배해야하기 때문이다. 가장 이르기로는 새벽 4시, 늦어도 아침 7시에는 출발한다. 뜨거운 뙤약볕이 고통스러운 여름날의 순례는 낮에 어디선가 한잠을 자고 밤에 걷는 경우도 있다.

전날은 11번 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젠콘야도(善根宿)에 묵었다. 젠콘야도란 순례자들을 위해 마련된 간이 숙박시설을 말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근을 쌓는 숙소, 또 선근을 가진 이들이 묵는 숙소이기에 대부분 무료, 혹은 저가로 운영된다.

젠콘야도의 전통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코쿠 순례가 확립된 에도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젠콘야도가 있었다고 전한다. 지금은 없어진 형태지만 젠콘야도에 모셔진 불단에 등을 켜고, 그 등이 꺼질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퍽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형태야 어떻든 주머니가 가벼운 순례자들은 그저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잘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4월 중순이지만 등산로 입구의 젠콘야도는 사뭇 추웠다. 핫팩을 붙이고 잤는데도 새벽추위에 시큰한 코를 문지르며 일어난 시간은 오전 5시. 조용히 침낭과 매트를 정리하고 뒷사람을 위해 어젯밤 들어올 때 그대로 숙소를 정리한다. 조용한 주택가에 지팡이소리를 또각또각 울려가며 11번 절 후지이데라(藤井寺)에 도착한다. 이른 아침 아직 문이 닫힌 후지이데라의 납경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잠시 추억을 회상한다.

2012년 여름 대학친구들과 순례할 때에는 점심이 조금 지나서 이곳에 도착했다. 다음 일정과 루트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으려니 납경소의 스님이 말을 걸어왔다.

"자네들 어디서 왔는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순례를 하는군, 다 불자들인가?"

"예, 다 불교를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종파는?"

"아, 조계종이라고, 임제선의 한 갈래인 한국의 선종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사람이 멀리서도 왔구만!"

알고 보니 후지이데라는 88개소에서 단 3곳뿐인 선종 사찰 중 한 곳이었다. 아직 끼니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뜨거운 물까지 손수 부어서 컵라면을 가져오셨다. 큰 호의에 몸 둘 바를 모르는데 스님의 과찬이 쏟아졌다.

"같은 선종을 공부하는, 그것도 시코쿠 순례를 이 뜨거운 여름에 도는 외국 청년들이라니! 정말 장하네!"

컵라면으로 감사한 공양을 들면서 사방승가(四方僧伽)의 감사함을 떠올렸다.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오직 한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따뜻한 정을 받는 것이다. 시코쿠 순례길은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길이다.

시코쿠에서는 이렇게 순례자들에게 보시하는 문화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다. 현지에서는 '오셋타이(お接待)'라고 하는 이 전통은 작게는 격려의 말에서 크게는 금전적인 도움이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시코쿠의 주민들은 순례자들을 코보대사나 불보살의 화신으로 생각하는 신앙이 있다. 수많은 순례자들 가운데 대사님과 불보살들께서 나투셔서 시코쿠를 순례하시고, 그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돌려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진다고 믿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에게 행해지는 보시 '오셋타이'는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 순례자들은 이러한 오셋타이를 받고, 그분들의 감사함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이것이 시코쿠 순례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이다.

앞서 설명한 젠콘야도도 오셋타이의 한 방식이다. 이 오셋타이의 감사함에 대해서는 또 거듭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2번 사찰 쇼산지(燒山寺)로 향하는 순례길은 시코쿠 순례 최초의 난관이다. 11번 절 본당 옆에서 들어가는 이 구간은 '헨로 고로가시(遍路ころがし)'라고 불리는데 '순례자가 굴러 떨어지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힘든 길이라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산등성이 3개를 넘어서, 마지막 3번째 산 정상 아래에 절이 있는데다, 가는 길에 마을이라곤 단 한곳, 물을 뜰 수 있는 샘은 두 곳뿐이다. 꽤 많은 도보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걷고 나서 초반에 포기하곤 한다.

길도 험한 산길, 미끄러운 바위틈을 지나는 소위 '짐승길(けものみち)'이다. 이렇게 길이 험한 이유는 쇼산지의 연기설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코보 대사가 수행 정진 중에 잠깐 잠에 드셨는데 꿈에 아미타부처님께서 "대사여! 어찌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깜짝 놀라 일어나니 온 산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대사님이 불을 끄려고 보니 평범한 산불이 아닌 요술로 생겨난 불이었다.

대사는 곧바로 계곡에서 목욕재계를 하고 진언을 염송하자 불이 사그라들었다. 불속을 가만 보니 커다란 흰 뱀이 수행을 방해하고자 불을 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뱀은 대사님의 법력에 놀라 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코보 대사는 진언을 외며 뱀을 쫓기 시작했고, 아흐레가 되던 날 뱀을 조복시키고 바위굴에 봉인한 곳이 12번 쇼산지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길이 험한 것도, 바위틈의 구불구불한 길도, 길에 샘이나 계곡이 드문 이유 모두 불을 뿜는 뱀이 도망간 길이기 때문이라는 전설이다.

노숙장비에 식량까지 짊어지고 오르려니 시작부터 구슬땀이 흘러내린다. 해가 뜨면 더워지니 아침 일찍 시작한 것인데도 덥고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그래도 여러 번 다니다 보니 좀 익숙해진 길이지만 첫 순례 때는 너무 힘들어 중간쯤에 있는 휴게소에서 1박하여 이틀을 걸은 길이다.

인기척은 찾기 힘들고, 길옆으로 멧돼지가 들쑤신 자국이 군데군데 보여 긴장되는 길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들이다. 붉은 화살표로 그려진 표지판들을 보며 '그래도 이 길에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낀다. 또 일정하게 놓인 지장보살상들도 힘을 돋워준다. 특히 순례길가에 있는 지장보살상들의 광배에는 다음 절까지의 거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쵸(丁, 1丁은 약 109m)'라는 단위로 새겨진 거리의 숫자가 줄 때마다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쇼산지를 코앞에 둔 바윗길에서 땀으로 멱을 감으며 문득 한 장면이 머리에 스친다. 학교에서 진행된 수계식에서 있었던 일이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수계증을 받자마자 주체를 못하고 큰소리로 엉엉 우는 일이 있었다. 스님들이 뒤로 데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계를 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운다는 것이었다. 절에 다니면서 신행활동을 해왔지만 계를 받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지금 험한 바윗길을 오르는 내 마음은 그 순수하게 기뻐하는 마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청정한 동기로 걷고 있을까? 이 걸음걸음은 과연 어떻게 내 마음에 다가올까? 몸이 힘들다고 피곤하다며 투덜대던 내 마음이 일순 부끄러워진다.

첫날 1번 료젠지의 본당에 앉아 '일체중생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나이다'라고 서원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몸과 마음은 그새 편하고 좋은 것만을 찾는다. 그래서 옛 말씀에 "모든 행을 '정념'이라는 밧줄로 묶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음 하나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들어 맬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리라.

가파른 바위틈을 넘어서자 자갈이 깔린 탁 트인 길이 나온다. 직감적으로 이 길 위에 12번 쇼산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한 십분 남짓 낑낑대며 올라가자 절 주차장이 나오고, 작은 샘터가 하나 있다. 배낭을 아무렇게나 풀어놓곤 머리에 한 바가지 끼얹고는 벌컥벌컥 물을 마시니 그야말로 감로수가 따로 없다.

다시 힘을 내어 쇼산지에 도착. 산문의 코보대사상이 오도카니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정상 바로 아래 자리 잡은 쇼산지의 경내 곳곳엔 아름드리나무들이 서있어 절의 오랜 역사를 짐작케 한다. 산 정상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하여 절 아래로는 귤 밭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납경을 받고 보니 납경소 옆으로 넓은 평상들과 의자들이 놓여있어 편히 쉴 수 있게 해두었다. 대부분의 도보순례자들은 하루나 이틀을 꼬박 12번 절에 투자한다. 이곳만 순례해도 그날의 일정이 끝나는 것이다.

아직 해가 지려면 꽤 남았으니 한숨 자고가도 된다는 납경소 직원분의 친절을 사양하고 하산길에 들어선다. '헨로 고로가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까닭이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포장이 잘된 차도와 만난다. 험한 산길에 이미 발에 열이 나고 욱신거리는 지라 잠시 차도로 걷기로 한다. 이대로 걷다간 발에 물집이 잡힐 것 같아 신발과 양말을 벗곤 잠시 발을 식힌다. 순례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발의 물집이다. 같이 걷던 친구중 하나는 뒤꿈치 굳은살 안으로 물집이 잡혀 물이 터지지 않아 한참을 고생했다. 결국 굳은살을 뜯어내고서야 아물었다.

오늘의 숙소는 또 다른 젠콘야도 '스다치칸(すだち館)'이다. 도쿠시마 지역의 특산품인 스다치(영귤)를 재배하시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 겸 젠콘야도.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시코쿠의 온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젠콘야도다.

주인할아버지의 차를 타고 근처 온천에서 몸을 데우고 돌아오니 할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 어젯밤 으슬으슬하게 자고 하루 종일 산을 타 몸에 감사함이 스며든다. 내일은 또 어떤 감사함과 마주할지 기대하며 하루를 마감한다.

〈자유기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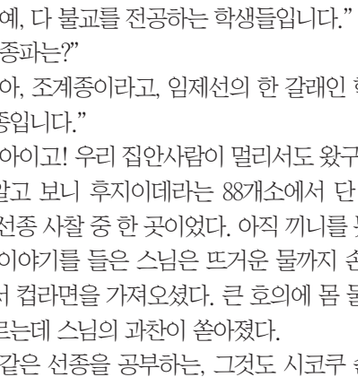
순례의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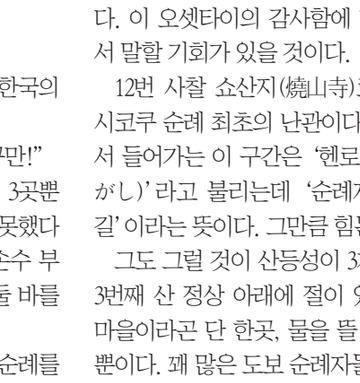


길가에 세워진 초등학생들의 응원판. "오헨로상(순례자님), 언제나 건강하세요"라고 적혀있다.

– 젠콘야도는 정말 신심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스스로 순례한 경험에서 우러나와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젠콘야도는 시코쿠 전체에 두 자리 수를 간신히 넘는 소중한 곳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자. 특히 한국인 순례자들은 음주에 관한 문제가 종종 들린다.
– 잠시 쉴 때엔 반드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식혀줘야 물집이 잘 생기지 않는다. 가능하면 냉수로 발을 씻고, 새 양말로 갈아 신는 것도 좋다.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스틸한옥
업 일주문 | 가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지운명
건강 120세
대구 법당 이온식 특별 할인 판매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 효소(발효) 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가 15만원인데
50% 할인하여 특별 판매 합니다.
₩75,000원
기회는 딱 한 번 많이 주문해주세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는 분,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는분에게 최고 선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꼭 필요한 책자
천지운명 건강 120세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30 페이지
정가 150,000원
※ 스님 특별우대

1 어떠한 병이라도 민간요법으로 치유할수 있음을 사실 그대로 이 책자에 수록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기관지 천식, 심장병, 피부병에 관한 민간요법이 탁월합니다.
3 명절 선물용으로 최고로 실속있는 책자이며, 어느 집이고 꼭 필요한 민간요법서 입니다.

H·P 010-4496-6060,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예금주 : 장지엽)

현대불교 제 1208 호 2018년 8월 15일 수요일 / 불기 2562년

돈, 누구 위해 먼저 써야할까?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⑮ 부처님이 설한 돈의 활용



그림 · 박구원

우리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다. 귀한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려서 가르치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다. 오늘날 누구나 '돈, 돈'하는 시장자본주의 세계에서 미운 자식에게 돈 더 주는 부모가 있을까?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른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는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어떤 증거가 있어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커플은 연애하면서 남자가 전화도 자주 안하고 문자도 자주 안 보내주니까 여자가 사랑이 식었다고 불평한다. 웃고 넘길지 모르지만 전화가 자주 오고 문자가 자주 오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낀다.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누구든지 전화가 뜸해지고 문자조차 적막하면 사랑이 식었나라고 의심한다. 사랑이 식었다고 연인이 불평할 때 남자가 명품 백이나 보석을 선물하면 의심이 풀린다. 어쩌면 전화나 문자보다도 돈, 재물, 물질이 더 중요한 징표다. 고맙다고 말하면 자주 하는 농담 중에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물질로 표시해 줘"라는 농담이 있다. 정말 고맙다면 큰 선물을 하고 싶을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재산이 많을수록 자식이 부모를 방문하는 횟수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한다. 한국은 자식이 오직 부모 돈을 보고 효도하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제는 돈에 의해 좌우된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오가는 물질로 사랑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자식에게는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서 다른 자식에게는 조금만 준다면 준 재산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부모가 큰 아들을 불러 놓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알지? 너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물질로 판단하지는 않겠지?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지만 네 동생한테 전 재산을 물려줄테니 너는 내 사랑을 의심하면 안된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돈 사용 순서도 정해 놓은 부처님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여 지금까지 긴 세월동안 사랑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돈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용하고 누구에게 제일 나중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혹시 부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돈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정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처님은 돈을 사용하는 순서까지 정해 놓으셨다.

불교 경전은 지출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거론하고 있다. 첫째 부모, 둘째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 하인, 셋째 수행하는 사문과 바라문이다. 불교에서는 보시하고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받들어 섬기는 것으로 본다. 부처님은 첫째 그룹인 부모를 근본불, 둘째 그룹인 처자, 친척, 권속, 종, 품꾼, 하인을 집불, 셋째 그룹인 수행자를 밭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스님에 대한 보시를 복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밭'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이 세 그룹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 있을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한 지출 대상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에게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 친척 권속, 종의 순서로 지출해야 한다. 〈중아함경〉은 "능히 자기도 기르고 또 부모, 처자, 노비, 하인들도 안온하게 하며…"라고 설한다. 〈잡아함경〉은 "착한 남자는 많고 값진 재물을 얻으면 스스로 써서 즐겨하고, 부모를 공양하며, …"라고 설한다. 불교는 자리이타를 추구하기에 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모, 처자의 순서로 돈을 쓰면 된다.

불교를 보는 세상의 눈은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견해에 갇혀 있다. 불교는 수동적, 소극적, 허무주의적 종교이며 무엇이든 양보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의 종교라는 고정관념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불교가 자비의 종교이고 중생구제를 위한 종교지만 자기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다. 자리이타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데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상이다. 자신을 위해 돈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순서는 바로 자리이타의 사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게다가 불교의 논리적 합리적 성격은 누구에게 재물을 써야 하는가에서도 나타난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기부하고 자선하는 무조건적인 보시는 불교적인 것이 아니다. 〈장아함경〉은 "재물 쓰되 사치까지 이르지 말고, 마땅히 줄 사람 가리어주라, 남을 속이고 함부로 내 닫거든, 아무리 빌어도 주지 말아라."고 설한다. 즉 나쁜 사람에게는 절대 보시하지 말라는 의미이니 돈이 넘쳐난다고 해도 줄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시를 받을 수 없다. 〈장아함경〉은 "보시라고 해도 사견(邪見)을 가진 대중에게 보시하면 그것은 깨끗한 복이 아니다."고 설한다. 어떤 보시든지 좋은 것은 아니다.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나쁜 견해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 보시해야 깨끗한 복을 얻는다. 일단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깨끗하지 않은 복이라도 얻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잘못이다. 부처님은 아예 그런 사람에게 보시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지출, 1순위**
> **강요하는 자에게 '보시말라' 설법**
> **헌금 등 강제규정 없는 근본 돼**

아무리 못된 인간이지만 불쌍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할까? 경전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걸식할 정도로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강요하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지 말라고 설한다. 보시는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법칙인 셈이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불교는 참으로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는 사실이다.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 교리는 이성에 합치한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못된 놈에게는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보시 하는자, 받는 자가 이득되는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부자가 불교교단에 많은 돈을 보시하여 불교의 발전을 도왔기에 상업불교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오늘날도 부자의 보시로 사찰에서 불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보시할 때 보시 받은 사람의 재정만을 염두에 두면 안되고 보시 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사람의 재정의 합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보시 받는 사람의 재정 극대화를 목표로 삼지 말고 보시 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사람의 재정 합계를 극대화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어떤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헌금을 많이 내라는 목사의 압력에 힘들다며 불교에서는 그런 고통이 없느냐고 물었다. 불교라고 다를 것은 없다. 스님이 불사를 하면 신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독교는 십일조라는 제도가 있어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데 반하여 불교는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 성경에는 분명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그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절이어서 십일조는 세금에 해당하므로 오늘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기독교인이 다시 교회에 소득의 10분의 1을 내면 이중 과세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런 설명이 없기에 목사가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면 교인은 내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기독교보다 보시를 더 강조하는 종교이다. 경전을 보면 보시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내야 한다는 수리적 표현은 없다. 대승불교에 오면 보시를 더욱 강조하고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과다한 보시를 칭찬하는 구절이 경전에 있지만 초기 불교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보시에 대한 태도는 이와는 다르다. 부처님의 직설이라고 불리우는 초기 불교 경전이야말로 부처님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문헌이다. 문헌학적으로 밝혀졌지만 대승불교 경전은 후기의 불교학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저술한 경전이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부처님의 제자 아난의 말인 것처럼 경전이 시작되고 있지만 사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라 후세의 탁월한 불교 수행자가 저술한 경전이다. 물론 대승불교 경전이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니 불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뜻에 맞게 확장 발전해 온 측면도 있고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 혼자 만들었다기보다 수천년 동안 수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공동으로 만든 종교이기 때문이다.

〈사분율〉은 "어떤 집에 가기만 하면 언제나 밥과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주었으므로 그 집이 가난해졌다. 사람들이 '그 집이 먼저는 큰 부자이어서 재물이 많았는데 사문 석자들에게 공양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재물이 다하여 빈궁함이 이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문에게 공경 공양하면 도리어 빈궁함을 얻을 뿐이다'고 하였다. 부처님이 이를 아시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자주자주 거사의 집에 가서 음식 공양을 받아 그 집이 이처럼 가난하게 하였느냐'고 꾸짖으셨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갈마(羯磨)를 하여 여러 비구들이 그 집에서는 밥을 받아 먹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집의 재물이 다시 많아지면 갈마(羯磨)를 풀어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계신다."고 설한다. 초기 불교 경전 곳곳에서 출가자가 재가자의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부처님의 배려가 나타나 있다. 재가자의 보시에 의존하여 출가자의 경제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재가자와 출가자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셨다. 만약 재가자의 생산력이 훼손되어 생산이 감소하면 출가자에게 가는 미래의 보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출가자에 대한 보시는 재가자의 생산력이 증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미래 보시도 증가한다.

보시받음도 중도 강조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받으면 안되지만 부처님은 고가품이나 사치품은 아예 받으면 안된다고 금지하셨다. 〈사분율〉은 "어떤 믿음이 있는 장인바치가 뼈, 상아, 뿔 같은 것으로 바늘 통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로 인해 가난해졌고 사람들이 '사문 석자에게 공양한 뒤로부터는 집이 가난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공양을 하는 까닭은 복덕을 바라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재앙을 얻었구나'라고 비구들을 비난했다. … 부처님께서 '어찌하여 바늘 통을 만들게 하여 그의 재물을 다하게 하였느냐고 꾸짖으셨다."고 설했다. 사치품이나 고가품은 소욕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출가자에게는 맞지 않기도 하지만 이러한 보시는 시주하는 신도를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에 금지하는 측면도 있다. 뭐든지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가자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보시하면 된다. 그렇다면 얼마를 보시해야 할까? 경전에는 이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증일아함경〉은 "자기의 소유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준다."고 설하고 있다. 불자는 여유 있게 생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남는 것을 보시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거액의 보시를 한다면 비록 가상하기는 하지만 부처님이 생각하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경제공동체를 훼손하는 보시다. 사찰이 재가자의 경제생활을 도와가면서 보시를 받은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역사적 사례가 많다. 불교도 앞으로 과거의 불교경제공동체의 경험을 현대적으로 되살려서 재가자와 사찰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생의 불교경제를 실천해야 한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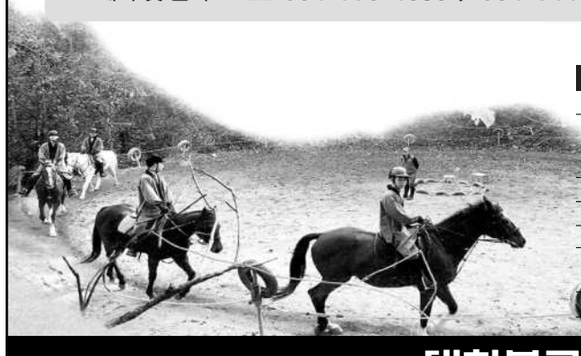
제 53회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 53회 화랑수련회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 언 제 : **2018년 7월 29일 ~ 2018년 8월 18일 (3주간)**
■ 모집인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 수련회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양말 · 운동복 · 운동화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www.sunmudo.com

- **기본 프로그램**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일 과 표 〈일과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내 용	시간	내 용
5:00	기상	13:00	독서와 사색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6:20	아침 공양 (주1회 발우공양)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9:00	원어민 영어 수업/불교 강의	17:10	저녁 공양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8:30	저녁 예불
11:00	108배	19:00	자아성찰 및 참회록 쓰기, 방학 숙제하기
11:40	점심 공양	21:00	취침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선 무 도 화 랑 학 교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불기 2562년 대한불교대승종

봉 **종도수련 대법회** 행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62(2018)년 9월 16일(일) 오후 2시 -**
9월 18일(화) 오전 10시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장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89
천년고찰 도봉사 02-954-1113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대승종 중앙 종의회 · 대승종 교구종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계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기 무여 합장

어머니 마야부인 위한 부처님 설법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㉙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1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업보가 담긴 항아리를 들어서 엎어 버리는 것이 우란분절이다. 또 일년에 단 한 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옥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날, 바로 지옥의 개점휴업일이다. 다겁생래에 지은 다양한 업보가 한 순간에 사라져 지옥문이 열리면 그 곳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이런 일이 연중행사로 있다고 하니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청정한 스님들, 즉 미래에 부처를 이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리운 이들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한다. 스님들 역시 공양자와 그들의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위해 자신이 한 철 동안 공부한 모든 공덕을 그들에게 돌린다. 지금쯤 모두 우란분절 기도를 이같은 마음으로 봉행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지옥에 반드시 간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안 갈 것이라 생각하다가도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겁이 더럭 난다. 마음 한 켠으로는 이 두려움이 새록새록 살아나지만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작은 선행을 하며 공덕을 심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자신을 위로하기도 한다. 이 두려움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시키니 바로 지장보살이다. 이 분은 지옥길을 동행하며 그 곳에서 우리가 영원의 지옥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 곳은 스쳐 지나가는 곳' 임을 알려주시며 매 순간 지옥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지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다 구해낼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서 '대원본존(大願本尊)지장보살' 로 그 분을 부른다.

지장보살이 전생의 삶속에서 세운 원력과 사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 지옥을 벗어나는 법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지장경〉이다. 〈지장경〉의 본래 경명은 〈지장보살본원경〉으로 당나라 실차난타가 번역한 2권의 책으로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부인을 위하여 설법한 경이라 불교의 효경(孝經)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야부인은 왜 도리천에 계시며, 왜 마야부인이 부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부처님이 지상에서 천상인 도리천으로 가서 설법을 하게 되신 것일까, 바로 지장보살과 마야부인의 만남을 위해서다. 두 분 다 중생을 위해 자신의 성불을 뒤로 미룬 원력보살이니 부처님은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통해 중생의 모든 고통을 알게 하여 비원(悲願)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도리천의 설법을 시작한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품' 을 읽어보면, 53선지식 가운데 등각(等覺)의 42번째 선지식인 마야부인은 과거 전생에 도량신인 자덕(慈德)이었을 때, 보살이 부처되는 모습을 보고 난 뒤,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이 되시려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저로 하여금 그 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해주소서.' 라는 발원으로 무수한 겁 동안 부처님들께 공양하며 기다려 온 인연으로 마야가 되어 싯다르타를 낳게 되었다. 싯다르타를 낳고 7일 후 자신의 소임을 마친 마야부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실 보살들이 계시는 도리천에서 머물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부처님은 그 숭고한 발원으로 자신을 사바세계로 인도한 어머니에게 지장보살을 소개한 것이다. 사바세계 중생들이 겪는 고통의 모습을 알려줄 지장보살을 등장시켜 어머니 마야부인으로 하여금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더욱 커지도록 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의 장을 연다는 소문이 우주법계에 순식간에 퍼졌다. 각 세계의 부처님들이 '석가모니불이 이 험한 세상에서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억세고 거친 중생들까지 고통이 사라지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전하려고 하시니 어서 모이시오!' 라는 소식을 전하자 각 처에서 온갖 광명구름과 아름다운 음악과 28천의 하늘세계 대중들과 우주에 있는 모든 이들이 속속 도착하였다. 그 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문수여, 대단하지 않느냐, 이들을 다 보고 있느냐? 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지 아느냐?"

문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른다고 한다. 부처님은 저 많은 이들은 바로 지장보살이 지옥에서 구제한 이들이라고 하자 문수는 놀라며 도대체 어떤 원력과 실천을 하신 분이기에 저토록 많은 이를 구하셨는지 여쭈었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금강경 공부로 CEO 교육 가능하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㉘ 금강경의 현실적용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불자들은 종종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염송하거나 다라니를 지송하며 재앙 소멸과 소원 성취를 기원합니다.

불보살의 가피에 힘입어 각종 재앙을 소멸하고 무슨 소원이든 다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불자들도, 관음보살 염송이나 다라니 수행으로 무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범부가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부가 변하여 성인이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것은 탐진치(에고, 아상)를 소멸하여야 되는 것이며,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며, 마음 닦아 성불하는 문제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타력 수행보다는 자력 수행, 예를 들면 참선 수행과 같은 자력 수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공부는 핵심 진리인 '일체유심조' 나 공의 진리를 실천하여 마음속의 탐진치가 착각이요, 본래 없음을 깨달아 탐진치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때 부도덕한 사람이 도덕적이 되고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자가 되며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의 번뇌는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입니다.

탐심은 '어서 하겠다.' 고 설치는 마음으로 가장 원초적 번뇌이며 근본적 욕망입니다. 다음은 진심으로 '왜, 아니 되나?' 하며 짜증내는 마음입니다.

가장 고급인 욕망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마음 즉 치심이 되겠습니다.

욕망의 크기로 따진다면 탐심의 욕망이 가장 커서 사람의 눈에 잘 뜨입니다. 탐심의 색깔이 있다면 검은색입니다.

진심의 욕망은 탐심보다 그 크기가 작아 사람들의 눈에 덜 뜨입니다. 색깔로 표현하면 붉은색이나 누런색입니다. 가장 크기가 작아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욕망이 있다면 이는 치심입니다. 치심을 색깔로 치면 눈에 잘 띄지 않는 흰색입니다.

수도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 각종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벗어나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닦는 과정에서 기본 욕망인 탐심이 가장 먼저 소멸되며 다음 해결 과제는 진심이요, 맨 나중에 미세하여 잘 보이지 않는 욕망, 즉 치심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치심은 잘 알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해결하는 순서로서 세 등급의 사람으로 분류해 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은 근본적인 욕망, 즉 탐심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두꺼운 진심의 벽이나 치심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탐심, 즉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 다음 욕망인 진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진심의 욕망까지 해결한 사람은 탐심을 해결한 사람보다는 낫지만 아직 부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치심이라는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어느 정도 닦은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욕망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욕망, 자연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욕망인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방거사와 '이 뭣고'

하루는 방거사가 큰 신심과 용기를 내어 석두 선사를 친견하고, 불여만법위여자(不與萬法爲如子) 시심마인(是甚麽人) 잇고? 라 물었다.

해석하면 "만 가지 진리의 법으로 더불어 벗을 삼지 아니하는 자, 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석두 선사가 그 즉시 방거사의 입을 틀어 막아 버렸다. 여기서 방거사는 홀연히 진리의 눈이 열렸다. 다시 방거사는 그 걸음으로 수백리 길을 걸어서 마조 선사를 친견하고, 석두 선사와 같이 물었다. 마조 선사께서 일구흡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 즉향여도(卽向汝道)하니, 즉 "그대가 서강수(西江水) 큰 강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일러 주리라" 하는 이 한 마디에 어하대도(言下大道)하여 마조 선사의 제자가 되었다.

그 후로 방거사는 집으로 돌아와 대대로 물려온 전답(田畓)을 이웃들에 나눠 주고, 가보(家寶)와 전 재산을 큰 배에 가득 싣고 가까이 있는 동정호(洞庭湖)에 수장 시키자, 사람들이 방거사에게, "그 많고 귀중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는가?"하고 아쉬워 했다. 그러자 방거사는 "내가 수행에 큰 짐이 되는 집착의 애물단지를 남에게 되돌려주어서 되겠는가?"라고 답했다.

그 후 자신은 수백명을 거느린 장자로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산으로 가 오두막을 지어놓고 산죽을 베어다 쌀을 이는 조리를 만들어 팔아서 생활하면서, 온가족(부인과 딸 영조)이 참선 수행에 몰두하였다.

하루는 단하천연(丹霞天然) 선사가 방거사를 찾아 왔는데 마침 딸 영조가 우물서 채소를 씻고 있었다. 단하천연 선사가 "방거사 있느냐?" 물으니, 영조가 일어나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서 있었다.

"단원공제소유(但願空諸所有) 신물실제소무(愼物實諸所無) 호주세간(好住世間) 개여영향(皆如影響)"이라. 이를 설명하면 "다만 있는 것 비우기를 바랄지언정 없는 것들을 함부로 채우지마라"이다. 이는 그 유명한 방거사의 임종게이다.

단하천연 선사께서 즉시 그 뜻을 아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방거사가 있는가?"하고 재차 물으니, 딸 영조가 가슴에 얹은 양손을 내려 채소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이에 단하천연 선사도 즉시 되돌아 갔다.

말이 없는 가운데 말이 분명하니, 이런 문답(問答)을 바로 볼 줄 알아야 진리의 고준한 안목을 갖추게 되고 만 사람을 도(道)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날 방거사가 가족과 함께 방에서 쉬고 있다가 한 마디 던지길 "나나난(難難難) 어렵고도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일백석이나 되는 기름통의 기름을 펴는 것과 같구나"고 하니, 부인이 그 말을 되받아서 "이이이(易易易) 쉽고도 쉬움이여, 침상에서 잠자다 내려오는 것보다 쉽도다" 고 하며 "명명백초두(明明百草頭) 명명조사의(明明祖師意)"라 즉 일백가지 풀끝이 모두가 불법의 진리 아님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이에 딸 영조가 야불난(也不難) 야불이(也不易) 즉 어렵지도 쉽지도 않음이여, 기래끽반(飢來喫飯) 곤래면(困來眠) 즉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방거사와 같이 일체처 일체시에 '이 뭣고' 화두와 함께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금생에 기필코 생사의 고해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방거사의 임종게를 소개하며 강의를 맺는다.

"단원공제소유(但願空諸所有) 신물실제소무(愼物實諸所無) 호주세간(好住世間) 개여영향(皆如影響)"이라. 이를 설명하면 "다만 있는 것 비우기를 바랄지언정 없는 것들을 함부로 채우지마라"이다. 간화선을 재창한 대혜종고 선사도 이 구절만 지우지 않는 다면 평생 참선하는 일을 마친다고 하였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사

교원 보직 인사발령

△불교문화대학원장 겸 불교문화대학장 안양규 △경영대학원장 겸 상경대학장 주재훈 △인문대학장 김영철 △기획처장 문태수 △국제교류처장 박종구 △평생교육원장 겸 생태교육원장 허상현 △교원인사실장 안영규

직원 보직 인사발령

△총무처장 성채용 △금장생활관장 김근묵

이상 8월 7일자



"나의 마음등불 찾는 시간"

화엄사, 8월 3~5일 청소년 명상캠프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3~5일 경내에서 '청소년들의 마음등불 머슈멜로우 캠프'를 열었다. 구례뿐 아니라 순천, 광주, 청주, 서울 등에서 찾아온 20여 명의 중학생들은 마음그림상담연구소 '온새미로' 대표 담소 스님의 지도 아래 4가지의 명상섹션과 심리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밖에도 인간 매듭 풀기 등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여름캠프에 맞춰 지리산 계곡 물놀이를 즐기고, 스님들과 함께 명상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했다.

순천에서 참여한 김솔비 양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잘 대해주셨다. 불교에서 예불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것도 좋은 경험이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무언가를 얻었는지 당장은 잘 모르지만 어디선가 마음의 등불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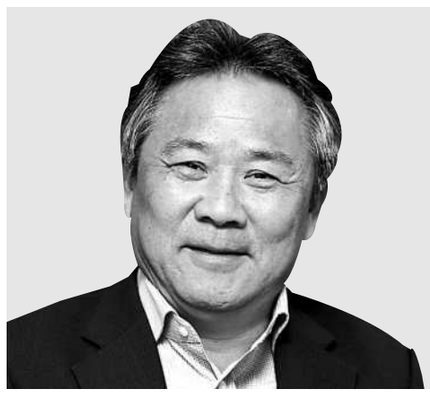


국제선센터, 동국대 1천만원 기부

'동국108리더스'에 장학기금 전달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8월 6일 동국대에 '동국108리더스'를 위한 장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참여했다.

평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동국108리더스'와 연을 맺어온 조계종 국제선센터는 해당 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신성민 기자**



"이웃종교 평신도와 대사회 통합 이끈다"

Interview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기흥 초대 이사장

김지원 수습기자 jayjace@hyunbul.com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 2대 대표회장직에 이어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 이사장 소임을 맡게 돼 남다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불자들과 한국불교계를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종교를 아울러 갈등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내 7대 종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신행실천단체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8월 8일 현판을 걸고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으로서 평화협 초대 이사장을 맡은 이기흥 이사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 전신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본부는 각 종교계 신도들이 모여 급격한 사회변화로 불신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세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웃종교간 대화와 협력으로

직능별 각자 본분 충실하자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확대
'한반도 평화' 등 주제 다양화
7개 종교계 화합의 장 마련도

이를 극복하고자 발족했다. 이번 사단법인화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대중 참여를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은 종교인, 공무원 등 직능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답게' 사는 것을 실천해 사회 분열과 혼란을 극복하자는 취지의 시민사회운동으로, 2015년부터 동명의 운동본부 주도 하에 전개됐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세미나, 실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공모전, '이웃종교스테이' '전국종교인화합대회' 개최 등 캠페인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해왔다.

앞으로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기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범위를 확산시키고, 종교를 기반한 신도 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협의회는 청소년 교육 및 훈련 사업,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등 사업 확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0월 중순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서로 다른 종교계가 참여하는 만큼, 각 신행생활 간 공통분모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둘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다짐 걷기대회'를 통해 이웃종교 간 화해뿐 아니라 남북 공존과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원력, 후대의 귀감"

진불장 혜성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청담문도회 문장인 진불장 혜성 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7월 29일 서울 도선사에서 청담문도회장으로 엄수됐다.

도선사 특설법단에서 진행된 영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명종 5타를 시작으로 개식과 삼귀의, 행장 소개, 생전 육성법어, 영결사, 영결법어, 추도사, 추모편지 낭독, 헌화 및 발원 등이 진행됐다. 영결식에서는 불교복지와 교육, 포교에 남긴 혜성 대종사의 발자취를 다시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혜성 대종사는 교육가이자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까지 부처님 제자로 중생들을 위해 노력했다. 애달프게 그리워하는 중생들이 있는 삼각산 도량으로 속히 돌아와 부처님 제자로 자유자재한 경지를 보여달라"고 추도했다.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영결법어에서



혜성 대종사의 법구를 이운하는 청담문도회.

"불조 속박을 풀어헤치고 오늘 아침 나고 죽음 없는 일구를 부르니 목마가 불 속에서 춤을 추고 바닥없는 신발이 눈앞에 있네"라고 추모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의 추도사와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의 문도대표 추도사, 군종특별교구장 선묵 스님의 '사형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등이 진행됐다.

영결식 후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은사 스님의 유지를 이어 전법과 수행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표했다.

스님의 법구는 도선사 입구의 안양암을 거쳐 특별 연화대에서 다비됐다. 다비식에는 1000여 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정근을 했다.

한편, 혜성 대종사는 "백운대 밑 수행자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을 뚫어(도량을) 세웠네. 다음 생에는 어두움 벗어나, 굳센 뜻 부지런하여 마음의 왕이 되리라(白雲下一僧 惜心建通山 次生再出盲丹志及心王)"는 임종게를 남겼다. 혜성 대종사 49재는 7월 31일 오전 10시 초재를 시작으로 9월 11일 오전 10시 도선사에서 7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전 세계 청소년과 나눈 우정

불교스카우트, 국제잼버리대회 참가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은 8월 2~7일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린 제5회 국제 패트롤잼버리에 총 95명의 불교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을 파견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5개국에서 6500여 청소년이 참여했다. 스카우트불교연맹은 합장주 만들기와 태극부채 꾸미기, 아침예불, 일요법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쳤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법사대학 하계수련회

이틀간 법사과정 학인 50여 명 교육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8월 4~5일 충북 영동 반야사에서 법사 학인들의 신심고양과 자질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수련회는 법사대학에 재학 중인 법사과정 학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0명이 참여해 정진했다. 교육은 학사규정과 학업과정에 따라 법사교육에 준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전쟁 희생자 넋 위로

대구종교인평화회의, 경북 칠곡서 추모제



대구종교인평화회의는 7월 26일 경북 칠곡 다부동전적기념관 구국용사충혼비 앞에서 정전협정 65주년 기념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제'를 거행했다. 행사는 불교·천주교·원불교·개신교·천도교·유교 등 6개 종교인들의 의식과 진혼무, 청수봉전, 추모묵념, 분향, 추모헌시, 평화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종 교 인 과 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개인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7월 1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7월 10일까지 상반기 신고를 못 한 사찰은 연락주세요
- 2019년 1월 10일까지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개인별 지급명세서 제출

종교인 과세 신고대행시 필요서류

1.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국세청 세무대리 수임 동의에 필요합니다)
3. 급여내역 월 기본급(보시금) 및 종교활동비

서류제출방법

1. 우편접수 : (우)47715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2. 팩스접수 : 051-955-2129
3. 이메일접수 : parkwooky@naver.com

전화상담 051-996-0308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남곡당 윤명 대선사 유지 잇자”

고창 선운사, 초대주지 남곡 스님 35주기 추모재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는 7월 30일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윤명대선사 35주기 추모재와 불기 2562년 무술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봉행된 남곡당 윤명대선사 추모재에는 남곡 스님의 문손 재곤 · 재석 · 재정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원로스님들과 주지 경우 스님, 선운초기불교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 대학원장 환성 스님, 한주 재덕 스님과 법현 스님 등 선운사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해 남곡 스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남곡문도를 대표한 재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대중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수행과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지녔던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곡당 윤명 스님은 1931년 장성 백양사에서 영호 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193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3년 불교정화운동으로 격렬했던 비구대처 양설을 화합하는데 주력했으며 총무원 재무부장, 교무부장, 조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66년 초대 24교구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아 선운사 천왕문과 대웅보전, 도솔암을 중창하고, 1983년 세수 73세, 법랍 54년으로 선운사에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라북도 발전, 스님들과 함께”

태고종 전북종무원, 송하진 전북지사 간담회

태고종 전북종무원 스님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간 간담회가 열렸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7월 27일 전북도청 영상관에서 태고종 전북종무원 각 사암주지스님,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각 국장스님들과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과 보존회 스님들, 포교원장 승천 스님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청 측에서는 송하진 지사를 비롯해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종무 · 문화재 담당 관계자, 문화재 전문위원 회일 스님이 참석했다.

송 지사는 “지난 3월 새만금 영산문화 축제에서 보여준 스님들의 원력에 놀랐다. 그로 인한 세계잼버리 대회 개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도지사로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새만금 영산문화 축제에서 보여주었듯이 태고종 스님들은 나라와 전북도민을 위한 역할을 늘 고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스님들은 태고종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에 대한 운영 관리, 비문화재와 비전통사찰 전수조사, 영산작법 전통공연 개최 등의 도청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삼광사, 불국토 ‘연꽃 세상’ 초대

9월 8일까지 연꽃 문화제

부산 삼광사가 불교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으로 장엄된 불국토를 선보인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오는 9월 8일까지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전시기간 동안 경내 곳곳에 핀 연꽃으로 장엄된 도량을 쉼터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주제는 ‘배려, 존중, 나눔을 피어나는 연꽃’이다.

아울러 삼광사는 연꽃문화제 기간 중 9월 2일 오전 11시 다문화인들을 위한 ‘제6회 세계음식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이주여성 및 노동자를 비롯해 시민 30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공연 및 특별공연도 선보인다. 특히 다문화인을 위한 한국전통약선요리 전시체험을 선보여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도 시도한다. (051)808-711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폭 희생자 아픔, 우리가 보듬어야”

불교계 합천서 제73주기 원폭희생 영령 추모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조선인 피해자 7만여 명이 희생됐다. 소외되고 잊힌 조선인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을 위한 지원과 실태 조사를 촉구하며 희생영령을 기리는 추모제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8월 6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해원을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라는 주제로 제37주기 원폭희생 영령 추모제를 개최했다. 추모제는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원폭2세 환우회가 주관했다.

추모제는 개회사로 시작해 추모묵념 및 추도사, 유족대표 인사말로 진행됐다. 내빈들은 헌화하며 희생된 영령을 추모했다.

추모제에는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문준희 합천군수, 강석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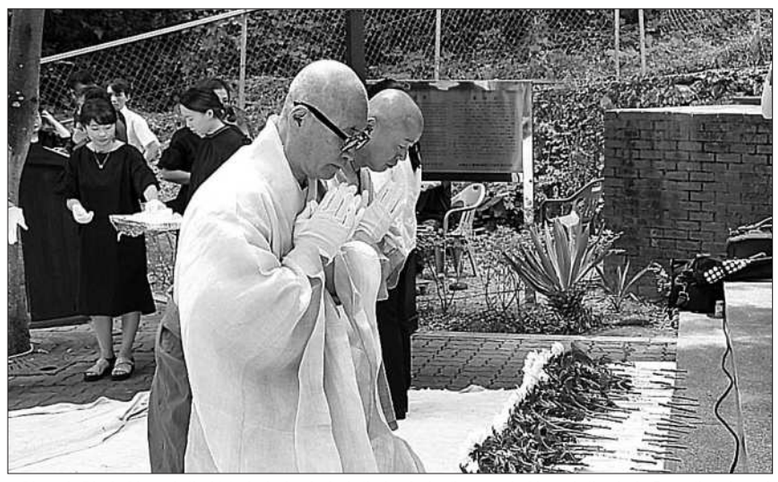
지원 스님은 “7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책임지고 사죄하는 가해국 권력자는 누구도 없는 가운데 추모비만 쓸쓸하게 이국땅에 서있다”며 “비핵화는 평화의 길이며 20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돼 후손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은 “현재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원폭피해 2세 환우 등 후손들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특별법 개정이

조선인 원폭 피해자 7만명
생존자 2천여 명 남았지만
피해자지원법 반쪽짜리 불과
“후손도 포함되도록 개정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합천평화의집(원장 이남재)은 8월 5~6일 ‘비핵 · 평화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제7회 2018 합천비핵평화대회’를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에서 진행했다. ‘2018 합천비핵평화대회’는 원폭에 희생당한 희생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피폭자 1 · 2세의 고통스런 삶과 아픔을 공유하며 비핵 ·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다.



8월 6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열린 제37주기 원폭희생 영령 추모제.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이 헌화하며 희생 영령을 추모하고 있다.

대회는 이토 타카시 감독이 직접 북한을 방문해 최초로 원폭피해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다큐영화 ‘히로시마 · 평양’이 상영됐으며, ‘비핵 · 평화이야기 한마당’에서는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며 느낀 탈핵에 대한 순례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은 “비핵화 평화대회는 두 번 다시 지구상에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고, 그 뜻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며 비핵 평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작은 도시 합천에서 울리는 평화의 외침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폭탄이 떨어진 당시 히로시마에서 8만 명, 나가사키에서 20만 명이 숨졌다. 그 가운데 한국인 사망자는 나가사키에 3만5000여 명, 히로시마에 1만5000여 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20%를 차지한다.

일제강점기 많은 한국인이 징용됐으며, 그중 원폭 피해자의 70%가 합천 출신이다. 국내 원폭피해 생존자 2000여 명 중 600여 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린다.

‘보시행’이 이끄는 불교인재 양성

법륜비구니장학회 제 9회 장학금 수여

비구니 인재불사를 위해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설립한 법륜비구니장학회가 9년째 장학금을 전달하며 스님들의 원활한 학업을 지원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이사장 명성)는 9월 3일 청도 운문사에서 ‘제 9회 법륜비구니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 현재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6명의 스님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장학금은 효은 스님(영국 브리스톨대학 종교학과), 동건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능현 스님(동국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경한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미술사학과), 여친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성제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불교학과)등에게 전달됐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뒷줄 가운데)과 이사스님들, 장학생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수여식에는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운문사 회주), 상임이사 진성 스님(내원사 주지),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감사 운산 스님(운문사 승가대학 학감) 등 20여 명의 이사 스님들이 참석했다.

법륜비구니장학회 이사장 명성 스님은 “장학금 대상자들은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으로서 보살도 정신으로 불교의 희망과 빛이 돼주길 바란다. 특히 앞으로 보시하는 데 마음을 쓰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능현 스님은 장학생을 대표해 “운문사 회주 명성 어른스님의 정성을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와 수행에 매진하겠다. 훗날 불교 어린이 교육불사를 위해 회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한 스님은 “어른스님들의 격려와 가르침으로 학업에 정진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법륜비구니장학회는 비구니 및 불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불교발전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9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금 마련을 위한 서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해 모연한 수익금 5억 원이 초석이 됐다.

현재 9억여 원 상당의 장학기금이 조성됐으며, 올해 9회까지 44명에게 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명성 스님은 법륜비구니장학회 외에도 학업이 우수한 사부대중을 격려하는 법계장학금(2003년 시작)과 불교문학 발전을 위한 법계문학상(2016년 제정)을 통해 인재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청도 운문사=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실제는 내가 죽지 않고 항상 여기서 법을 설한다.

〈법구경〉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기도와명상

"신간 책 소개!"
기도와명상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국서점 구입!
책이름검색 손재찬선사 북갤러리 인터넷 구입!
모든불교인의 '필독서'입니다
문의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천기누설 운

"엄청난 책내용"
천기누설 운
검색!!
토굴기도실와
운명점술학박사1호 손도사님
책제목 검색 후 인터넷 구입
문의010-5105-5000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1년에 30회 뜹니다
무지개 스님
010-4413-3377

동이민간의술학회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각종 고질병
치유 전문 도량
전문치유사 교육생모집
심복사 지덕 합장
010-5758-868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보삼로 263-46 (북가현리 8-1)

최면 전수생 모집

①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② 최면치료는 부작용이 없다.
③ 빙의(신들림)에서 우울증, 자살충동까지.
④ 최면치료는 재발이 없다.
⑤ 사고장요법까지 전수해준다.

HOMEPAGE : www.hypnosis.or.kr
최면치료사 상담치유학박사 강성진교수
010-4844-700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모 집 안 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명 상 (무료)

"누구나"
T.1588-5654
화 태 명 상 원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3길 31
전철 2호선 홍대역 2번출구

뇌강기도법 전수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율곡 범음 대학

(광주전남 범음범패)
의식교육 학인 모집
- 대상 : 스님, 법사, 보살 가능, 사찰행사 함께 하실 분

초급 · 중급반	상 급 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6시

광주무형문화제 제 23호 범음기능보유자
문의 010-6241-849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62세 이하
(충남 지역 사찰)
041-673-8385

인생상담 능력있는 비구,비구니부전스님 및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421-0730

부전스님 모십니다

(지역 : 경북)
010-2078-9595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여법하게 염불 하실 수 있는 스님)
안양 금강사
031-471-6675

사찰화재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6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열반을 가리키지 못하는 천 마디 말 어디에 쓰랴. 듣는 이의 마음을 바로 쉬게 하는 일구의 법문이 값지고 귀하다.

〈법구경〉



지리산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요사채. 삼성각. 토지 19,000㎡
- 주변 산사찰. 기도도량. 전망 좋음.
- 양도 : 7억 2천만원 (융자가능함) (위치 알려드리지 않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 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시 치악산 자락
- 대지 : 900평
- 건물 : 대웅전 28평 (전통 목조)
- 요사채 2동, 산신각(4평) (각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010-4028-88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지리산사찰(급)안내
- 산중기도도량.토지5,000㎡
- 목조법당.요사채.삼성각.공양간
- 풍광일품 위치좋음.건물5동
- 운영잘됨. 스님 건강상 양도
- 양도가액 : 9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구입의사 있으신 스님만 모심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토 굴 안 내
- 위치: 신림 IC 15분
- 넓은주차장에서 바로 산으로 연결
-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환상적인 전망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대지 639평, 건평 60평
- 방3, 화장실3, 심야전기, 매우 따듯, 마을 상수도
- 가액 : 4억 2천

010-6399-337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 부지 : 150평
◎ 법당 : 40평
◎ 요사 : 70평
◎ 양도가 : 11억 3천
◎ 위치 : 서울 북한산
◎ 부지 : 100평 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 무허가 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 대지 108평, 건평 104평 1층 요사채, 2층 법당 각 52평
- 서울 시내 공원 입구 가족테마공원 개발 서울시 인가득 상태
- 가액 : 시설 포함 14억 5천

010-3124-3952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등기필
- 대지 : 도지료1년 35만원
- 넓은마당 및 텃밭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3백만원

010-8525-1959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용학로)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입구17년째 운영
- 평수 : 40평, 3층 옥상 사용 사무실, 스님방
- 법당 : 삼존불, 시설 원만,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1000만원, 월40만원.에어컨 완비
- 시설비 1000만원, 가격 절충 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도심 별장 같은 사찰
- 위치: 시청 5분, 김해공항 10분 거리
- 토지 : 270여평,주차장 완비
- 법당,산신각,종각,용왕당,종무소 주지실, 요사채(방3) 30평
- 돗대산, 주변1500세대 아파트
- 가액 : 평당 280만원 (은행 2억1천 안고)

010-9906-3631

일본 포교원 안내
- 위치 : 오사카 쯔루하시 재래시장 입구 한국인들 집중 거주지역
- 2017년 건립, 3층 건물 전체사용, 각층20평,법당,신중당,공양간, 접견실,침실,휴식처
- 시설 완벽, 몸만 오시면 됨
- 스님 건강 문제로 급 안내함
- 가액 : 문의 후 상담

010-3545-5060
일본 080-5358-5060
무료 070-8836-5060

15년 기반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역 인접
- 제반시설 : 법당, 주방, 상담실, 방 3개, 60평
- 2층 건물, 옥상 60평 사용
- 초기설비 : 3000만원
- 보증금 1000만,월세50만원

010-3452-11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53-20 외
- 대지 약 380평, 전290평
- 전통한옥ㄱ자형, 본채, 별채 (2채 약70평,부속건물포함)
- 준공일 : 2012년 12월
- 가액 : 8억 5천만원 (답사후 절충가능)

010-7449-29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602-9661

토 굴 임 대
- 위치 : 충남 청양군 소재
- 법당 : 컨테이너 하우스 1
- 요사 : 실내 해우소, 공양간, 방사2
- 마을 끝 산아래 위치
- 모든 집기 및 세간 구비 몸만 오셔서 될 듯합니다.
- 전. 월세 모두 가능

문의 010-3977-212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사찰(급)안내
- 위치 : 고성(위치 좋음)
- 대지 : 200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상태 양호(수리완료)
- 가액 : 3억 5천

010-9485-9318

사찰(급)안내
- 위치 : 김해 신도시
- 신축 2년
- 대지 470평
- 건물1층 60평, 2층 60평 식당 23평, 산신각 7평
- 법당안 1년등 1,450개
- 양도가 13억

주인직 055-346-2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집현면
- 대지 : 약 1,000평, 산 약 1만평
- 건물 : 법당 30평, 요사 25평, 산신각 3평, 기도방1칸
- 가액 : 5억 4천 8백만원

010-6520-585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대지 50평, 법당 삼불존, 지장보살님, 산신각, 삼층석탑
- 주방, 방4개, 샤워실, 집기 일절
- 스님 건강상의 문제로 급양도
- 양도 : 6천5백(즉시 법회가능)
- 입구 석간판

문의처 010-3356-191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 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빈집 방2개, 응접실1개 부엌 1개, 욕실 1개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150만, 월세 20만

011-759-018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근교 성주
- 아담한사찰, 대지 220평 (실재사용 약 300P)
- 본채1,황토방1,법당1,명상실1, 방4,욕실2,마당화장실1
- 매주 일요법회중.
- 가격 : 2억3000만원

010-7313-456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읍내5분거리
- 평수 : 약1,700평 • 가액 : 14억
- 대웅전1동, 삼성각1동
-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높이9m 30㎝ 둘레13m 돌탑108개 요사채2동
- 정자각1동,심야전기보일러 태양광열설치,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즉시법회가능

033-562-0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공양주방,다용도방,창고!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1억 안고 2억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확인 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서동
- 전체면적 : 181평
- 법당 지장전, 요사채,
- 별채,산신각,종무소 외 넓은마당
- 사찰외 넉넉한 주차장
- 조용하고 아담한 야산밑 평지에 위치한 도량
-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아늑하고 조용한 사찰
- 가액 : 6억8천만원

문의전화 010-8718-5529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 산림도 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포교당(주택)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만촌동
- 법당(삼존불)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2048-42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단독 주택 약 50평
- 법당, 방3, 화장실2
- 법당(아미타 삼존불), 청동불(3자)
- 보증금 1천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청동불 인수 포함 1천만원

010-9735-8032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월 20만원 시설비 : 2,500만원
- 22년 포교중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 125평 중 건평 : 100평
- 법당 :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 아파트 대단지 4만 5천세대 부근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019-5385

금정산 전통 사찰
- 위치 : 부산외대 뒷산 고찰
- 법당,산신각,주지실,요사채
- 임도접, 600여평 점유
- 등산로, 샘물 식수 명당
- 짚차 4WD 올라감
- 가액 : 2억 5천만원

주지 010-3585-0200
010-9906-3631

전망 좋은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방사, 산신각
- 양도가 : 1억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관광객 후기 비난한 日사찰 '물의'

고야산 세키쇼인, 숙박시설 저평가에 '발끈'

박영빈 객원기자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교문화를 체험하고자 일부러 일본 불교성지를 코스에 넣는 여행자들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유명 템플스테이 시설에서 외국인 숙박객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30일 '뉴스위크' 일본판은 영국의 '가디언' 등 여러 외신과 SNS 등에 올라온 후기 등을 인용해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문제가 된 사찰은 일본 와카야마현, 고야산에 소재한 세키쇼인(赤松院). 고야산은 약 1,200년 전 일본의 고승인 쿠카이(空海)대사가 개산한 일본불교의 대표적인 성지다.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불교성지이다.

고야산에서는 중세이래로 일본전역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위해 슈쿠보(宿坊)라는 전통적인 숙박시설을 갖춰왔다. 현대에 들어서 슈쿠보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의 성격을 갖게 됐다.

실제 일본에서도 고야산의 슈쿠보들은 '일본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훌륭한 숙박시설'로 홍보되고 있다. 최근 이 슈쿠보들은 외국인 순례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인 숙박 예약 사이트들에 등록을 하고 고객들을 받고 있다.

세키쇼인의 슈쿠보 역시 숙박 예약 사이트인 부킹닷컴(Booking.com)에 등록되어 있다. 부킹닷컴에 등록된 숙소들은 실제 숙박객들의 점수와 후기, 그에 대한 숙소 측의 답변들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숙박객들의 후기에 대한 세키쇼인 슈쿠보 측의 신랄한 답변이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캐나다의 자유기고가 멜리사 마틴은 자신의 트위터에 외국 숙박객들의 후기와 세키쇼인 측의 후기를 스크린샷으로 게재했다. 이 트위터는 8월 5일 기준 1만8000회 이상의 리트윗과 3만9000회 이상의 호응을 받았다.

외국인 숙박객들은 대부분 '식사는 소박한 채식, 양이 부족하다' '사찰이나 불교의 역사,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 '환영받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등을 불만 사항으로 꼽았다.

해당 불만사항들에 대한 세키쇼인 슈쿠보 측은 '이곳은 수행도량이지 호텔이 아니다, 대체 무엇 하러 여기를 선택했는가' '서양인이라고 특별 취급할 이유도 없고, 굳이 친절히 대할 필요가 없다'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이해한다면 좋겠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스님들의 생활이 궁금하면 삭발하고 출가하라. 이상' 등의 신랄하고 정중하지 못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투고했다.

또 프랑스출신 숙박객의 '관광객이 너무 많다'는 불만사항에는 '너도 그 중 하나'라며 비난했다. 특히 익명의 이용자가 투고한 '아침식사는 엄격한 채식요리,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 입에 맞지 않았다'라는 불만사항에 세키쇼인은 '그래, 그건 일본의 사찰요리라는 것이다. 이 멍청아'라는 매우 속된 표현으로 회답하며 마지막에는 영문으로 욕설을 추가했다.

이처럼 부적절한 답변이 문제로 불거지자, 현재 해당 답변들은 모두 삭제됐다. 부킹닷컴 측에서도 세키쇼인 슈쿠보에 공개적으로 고객을 비난하는 답변을 자중해달라는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영국의 '가디언'은 해당 답변들을 투고한 다니엘 키무라 스님을 취재, 스님의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스님은 미국 출신으로 15년 전에 세키쇼인에서 출가, 현재는 슈쿠보에서 외국인들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다니엘 스님은 "화가 난 마음에 경솔히 답변한 것을 깊게 후회한다. 앞으로 표현을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스님은 이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래 영어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이 중엔 무례한 이들도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여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스님은 "사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채식식단에 대한 점은 숙박 시에 충분히 말하고 있다"며 "출가자이지만 인욕하지 못할 때도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가디언에 밝혔다.

관광객 평가와 사찰 답변

관광객A: "엄격한 채식요리, 지금껏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 입에 맞지 않았다."
세키쇼인: "그건 일본 사찰요리라는 것이다. 이 멍청아."

관광객B: "관광객이 너무 많다"
세키쇼인: "너도 그 중 하나"

관광객C: "직원이 불친절하고, 식사 준비가 미흡했다."
세키쇼인: "이곳은 수행도량이지 호텔이 아니다. 무엇 하러 여기를 선택했는가?"

도쿄올림픽 앞서 여행자 급증
사찰음식 · 역사 설명 부족 등
슈쿠보 이용객들 후기로 지적

세키쇼인, 신랄한 답변했지만
정중함 부족하고 욕설도 담아
다니엘 스님 "경솔한 점 죄송"



일본 불교성지로 유명한 고야산 세키쇼인 전경. 사진출처=부킹닷컴

티베트 스님들, 中공산당 시설 학대 경험

티베트 인권 민주센터
스님들 증언 발표 '눈길'

공산주의 찬양 · 군사훈련
비구니스님들 성적학대도

중국 공산당이 민족동화정책의 일환으로 티베트 자치구에 설치한 재교육시설에서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성적학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월 1일 일본의 '더 에폭 타임즈'는 '티베트 인권과 민주주의 센터(TCHRD)'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TCHRD는 지난달 28일 티베트 자치구 응악추(Ngag-chu)시에 있는 재교육시설에 수감됐던 스님의 증언을 전했다. 스님의 안전을 위해 증언은 익명으로 발표됐다.

이 스님은 수개월간의 구속에서 풀려난 후 "중국정부는 재교육시설을 교육기관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며 형무소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시설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애국교육'을 실시한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 부르거나 군사훈련을 받는다. 또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 다른 스승들을 비판할 것을 반복해서 강요한다"고 증언했다. 더불어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잔혹한 것은 비구니스님들에 대한 학대"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많은 비구니스님들이 혹독한 군사훈련에서 기절하거나 탈진해서 쓰러지곤 한다. 간수와 당 간부들은 쓰러진 스님들을 치료한다며 자신들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스님들을 성폭행과 고문 등 철저하게 성적학대를 가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며 참혹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서 "간수 중 몇몇은 약품이나 전기충격 등으로 비구니스님들을 기절시켜 방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애국교육에서 군복을 입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티베트 비구니스님들. 사진출처=TCHRD 공개영상 갈무리

또 시설에 수감됐다가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인 여성은 "재교육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절을 나와 환속할 수밖에 없었다. 간수들은 '환속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노동력이 돼야 한다'는 명목 하에 공공연하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력을 정당화했다"고 증언했다.

중국정부는 해당 증언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관련 의혹들에 대해 '티베트를 모국에서 분리시키려는 달라이라마 도당의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계속되는 중국정부의 티베트 불교 탄압에 국제사회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겨울나기' 돌입한 히말라야 스님들

해발 5,500m 위치… 1년 중 7개월 눈 속에 고립

전 세계가 이례적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한 사원은 벌써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이다.

채널뉴스아시아는 8월 7일 겨울나기에 돌입한 인도 히말라야 산맥 코믹(Komik) 마을의 트나규드 곰파(Tnagyud Gompa) 불교 사원 스님들 모습을 조명했다.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인 해당 사원에는 현재 약 20명의 스님들이 생활 중이다. 스님들은 신도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중 행사를 준비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매일 최소 두 번 기도 의식을 진행한다. 1년에 한 달 반 간 진행되는 하안거 동안에는 스님들이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지만 해발 5,500m 고지에 위치한 이 사원은 짧은 여름이 끝나면 1년 중 7개월 동안 눈 속에 고립된다. 사원이 위치한 코믹 마을은 최근 몇 년간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대설이 내리기도 했다.

스님들 중 일부는 겨울 동안 사원을 떠나기도 한다. 이에 스님들은 벌써부터 땔감과 연료를 모으고, 겨울 식량 마련에 여념이 없다.

사원 관리인 퍼마 샌드럽은 "스님들과 종무원, 거주자들이 가장 바쁜 달을 보내고 있다"며 "기도와 사중 살림에도 집중하는 한편, 수개월 지속될 겨울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완두콩, 감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것은 스님들의 식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사원 대부분은 티베트 스님들이 거주 중이다. 티베트 스님들은 약 50년 전 중국의 종교 탄압에 의해 히말라야 산맥에 모여 살기 시작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관세음보살님 청정성지 관세음보살님
기도삼매 친견 일천성불 받는 도량
미타산 불관사
불사 자비 보행 25년 불사중
불자인연 행자승 구합니다.
26세 계유생 27세 임신생
34세 을축생 35세 갑자생
42세 정사생 43세 병진생
50세 기유생 51세 무신생
62세 정유생 63세 병신생
준비서류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범죄경력조회 1통
(경찰서에서 발급해줍니다)
미타산 불관사
주소 : 경남 의령군 부림면 미타로2북길 133
전화 상담 : H·P 010-7578-6788


철골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거울 같은 마음이 분별 없앤다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4. 자비경선(慈悲鏡禪)

1) 걸으며 하는 명상

지난 6월 23일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에서 한국명상지도자협회주관으로 소외계층기금마련 한강걷기명상대회 '명상, 한강을 걷다'가 열렸다. 참가자는 2000명, 현장접수 시민들은 300여 명이 참여했다. 보통 걷기대회는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끝날 때는 모이지 않고 모두 흩어진다. 하지만 이번 걷기명상대회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걷는 순간순간 명상이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출발을 기다릴 때도 명상을 하고, 출발지로 되돌아와서도 명상을 하면서 마무리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주말이 되면 수만 명이 산으로 간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산행수준이라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산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기본적으로 걷는다. 바삐 가기만 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하지만 명상이 된다면 집중과 지혜가 생기고, 나아가 의식의 공간이 넓어지기만 해도 불안증세나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소된다.

우리가 걸을 때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감정의 변화도 일어난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집중과 지혜로 바꾸고 자비가 생긴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궁극에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참마음을 찾는다면 삶과 죽음의 갖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걷기명상이다. '명상, 한강을 걷다'에서 2300여 명이 걸으면서 명상했던 것은 출발, 알아차림, 멈추고 쉼, 묵언이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출발신호를 녹색기로, 멈추고 쉼을 붉은색 기로 표현했다. 원고에서는 걷기명상과 관련된 조금 세부적인 의미와 방법을 소개한다.

빨간색(불의 요소)-출발(베풂)

빨간색의 심리는 의욕이며 베풂이다. 삶의 고달픔에서 벗어나고자하며 자유로워지려는 의지를 일으킨다. 탐욕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심을 내어 베푸는 기쁨을 일으키는 심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빨간색 깃발을 들 때는 새롭게 자유로운 인생을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이다.

방법: 발을 땅에 디딜 때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뒤꿈치를 먼저 디디면서 엄지발가락까지 땅에 디뎌야 한다. 항상 이렇게 딛고 걸으면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가 쉬워진다.

노란색(흙의 요소)-알아차림(평등 · 소통)

노란색의 심리는 자존감을 파괴당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자아평등을 실현한다.

방법: 노란색 깃발을 들 때는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린다. 알아차림이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은 모두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고 땅과 발바닥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계속하면 의식이 깨어난다. 나아가 불어오는 바람의 접촉 피부, 햇빛의 접촉, 보이는 사물의 접촉으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린다. 자신과 상호의존하는 모든 것은 평등하고 소통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걸을 때는 의식을 발바닥(발가락)과 손가락에 동시에 두고 걷는다. 나아가 발가락-손가락-정수리에 의식을 동시에 두고 걷는다. 그러면 온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고 의식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진다. 의식의 공간이 넓어지면 불평등한 생각이 사라진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분노조절이 되는 힘이 생기고, 불안감 등이 사라진다.

이뿐만 아니라 성차별과 갑질 등 계층 간의 차별이 없어진다. 나아가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과 한 공간을 이루고 일체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게 된다. 그러하면 자아로 인한 모든 것에서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녹색(바람의 요소)-멈추고 쉼(평화)

녹색의 심리는 시기질투를 버리고 평온과 평화를 바란다. 그래서 멈추고 쉬는 것은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심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방법: 녹색 깃발을 들 때는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들리더라도 들으려 하지 말고 느낌도 느끼려고 하지 않는다. 생각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려는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단지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위치를 끄듯이 가만히 있기만 한다. 이것이 마음을 쉬는 것이며 마음이 쉬면 몸도 같이 쉬어진다.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또는 보이더라도 내버려두고 들리더라도 내버려두고 느낌이 있더라도 내버려두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버려두고 스위치를 끄듯이 마음의 움직임을 끄고 평온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무분별의 거울 만들기 위해
긴장 풀고 마음 내려놓는다
있는 그대로 사물 비추듯이
의식적으로 대상 알아차려야

흰색(물의 요소)-묵언(치유, 자비)

흰색의 심리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관용과 용서하는 심리를 일으켜 분노를 조절하고 증오심을 완화하고 없앤다.

방법: 흰색 깃발을 들 때는 걸으면서 생각을 쉬는 묵언이다. 걸으면서 과거 지나온 나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의 나는 아직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 걷고 있는 나도 머물지 않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뿐임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다. 과거의 집착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감으로 왕래하는 불평등한 생각을 쉰다.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쉰다.

자비경선이라 불리는 이유

자비경선은 자비선(慈悲禪)의 하나이다. 경선(鏡禪)은 거울명상이다. 여기에는 앉아서 하는 좌경선과 걸으면서 명상하는 행경선이 있다. 특히 행경선을 걷기명상 또는 걷기선(禪)명상이라 한다. 자비경선이라 한 것은 자비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경선, 즉 거울명상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마음'은 그 성격이 공성이다.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 바로 공성이기 때문에 경선 즉, 걷기명상하게 되면 공성이 거울같이 되어 자비심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자비경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비수관이나 자비다선을 수행한 수행자에게는 자비심이 배양되어 있으므로 탐욕과 분노, 슬픔과 해치고자하는 부정적인 심리가 줄어들어 적다. 이 때문에 산행 경선을 할 때 마음거울이 잘 형성되고 그 마음거울을 통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자비수관과 자비다선 수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비심이 풍부한 이들은 자비경선이 잘된다. 자비경선에는 경-환-공-화의 네 단계 깨달음의 경지가 있다.

경(鏡)-환(幻)-공(空)-화(華) 네 단계 깨달음의 경지는 거울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기능에 근거한다. 즉,

① 거울(鏡)은 비치는 모든 사물을 비교 분별하지 않는다.

② 비치는 사물이 거울과 사물의 인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고 오는 주체가 없다. 그래서 비치는 사물이 마치 환(幻)과 같다.

③ 오염물이 비치더라도 거울은 오염되지 않는다. 거울의 바탕은 허공과 같이 비어있기(空) 때문이다.

④ 거울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거울은 상황에 따라 그 상황대로 형상을 나타낸다. 이것은 내 마음거울에 중생의 괴로움이 비칠 때 그 중생을 도와주는 거울인 것이다.

⑤ 네 가지 거울을 동시에 명상한다.

이와 같이 마음도 네 가지 거울과 같이 하여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경선인 걷기선(禪)명상만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명상, 한강을 걷다'의 걷기선 명상은 트래킹 할 때 응용한 걷기명상이다. 이 트레킹 명상은 무수탕 또는 티베트 수미산에서 실시한 실전경험과 그 효과를 따로 설명할 것이다.

무분별의 거울

경선할 때는 무분별의 거울이 생기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즉, 경선을 하기 위하여 먼저 몸을 이완하는 몸 풀기를 한다. 다음으로 우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께에 힘을 빼고 몸의 긴장을 풀고 척추를 곧게 세운다. 이때 온 몸은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 무분별의 거울 같은 상태로 만들어진다. 몸은 거울 면이 되고 마음은 사물을 비추는 거울 빛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또는 그렇게 상상한다.

거울은 대상을 분별하지 않는다. 사람이 오면 사람을, 동물이 오면 동물을 비출 뿐이다. 그래서 거울은 무분별이다. 마음을 거울 같이 쓰면 무분별의 인식이 일어난다. 그러나 말과 같이 쉽지 않다. 직접 인식의 훈련을 반복해야 무분별의 거울 같은 마음이 나타난다. 그 방법은 의식의 작용으로 대상을 염(念)하는 것이다. 이 '염'을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알아차림이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대상을 즉각 아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반복 사물을 인식하면 자연 대상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무분별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무분별은 대상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이 무분별을 거울에 비유한다. 그러나 무분별이 공성은 아니다. 그래서 공성의 무분별과 구별해야 한다.

무분별을 이루는 알아차림을 숙달하도록 연습을 해야 한다.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과 공성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선정은 공성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조건이다. 선정 속에서 공성을 공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서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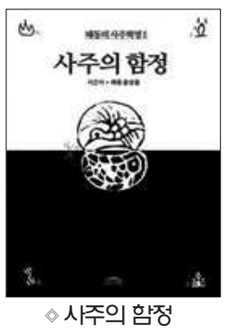
알아차림은 즉각 대상을 아는 것이므로 대상에 의미부여하거나 다른 것과 결부시키거나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는 대상을 없애겠다는 생각 등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즉각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신현상 과정과 물질 현상의 과정을 즉각 구분하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즉각 아는 것은 다른 감정과 생각의 개입이 불허하기 때문에 선정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가지 기본적인 자비경선은 첫째 걸으면서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둘째 소리 무상 관찰하기, 셋째 몸과 마음 휴식하기, 넷째 소나무에 기대어 관계성 통찰 사유하기 등이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해동의 사주혁명
"자연명리로 사주의 정체를 밝히다"
무료 공개특강 :
18년 8월 23일, 30일(목) 14:00
자연명리는 자연생태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명리를 연구하면서 깨닫고 발견한 이론



◇ 자연명리 : 초급편



◇ 사주의 함정

| 신지평 | 2018-06-22
저자 윤상흠 ('자연명리' 이론 창시자)
現)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現)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명리학 강의
現)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02) 929-4646, 010-8902-4640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5번 출구 (사잇길 80미터)

탈종공고

• 사찰명 : 대명사
• 주 지 : 광명
• 주 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답양3길 80
• 등록번호 : 06-01-985

상기 사찰과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각종 종정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보현사
• 법 명 : 길상(여숙자)
• 주 소 : 전남 순천시 황전면 수평신촌길 116

위 사찰과 위 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지종풍에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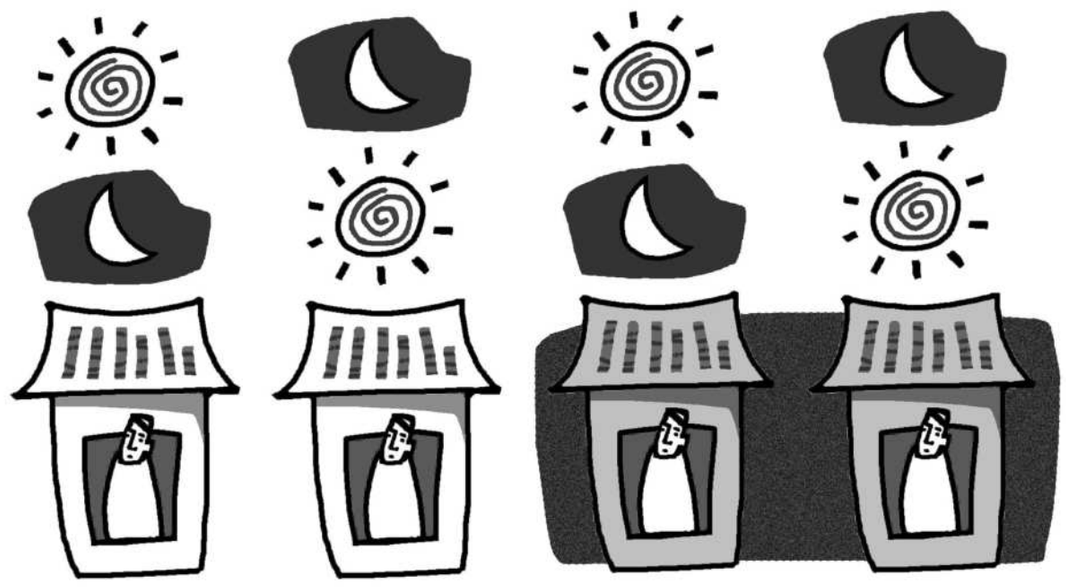
• 사찰명 : 의상사
• 법 명 : 법상(전헌수)
• 주 소 : 경북 경주시 황복길 78-61

상기 사찰과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5일

대한불교 반야종 총무원장 법하

항상 부모와 일체 제불과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한 것이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허허허. 여러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칠석(七夕)하고 백종(百種)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칠석을 지내셨는지 궁금하군요. 칠석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또 백종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칠석이다 하면 칠(七)은 우리 몸 자체와 마음 자체를 말하고, 석(夕)은 그 마음이 깊은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밝힌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성된 날이나 죽는 날이라고 해도 되고, 아침 저녁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불을 켤 때나 끌 때나 이런 것이 바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이듯이, 즉 말하자면 아침에 불 켜는 그 마음이나 저녁에 불을 끄는 마음이나 같이 엮어서 마음을 밝히라는 뜻입니다.

아침도 현재 내 마음속에, 저녁도 현재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쳐져야 불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없는 마음, 그 마음에서 발견해서 밝히면 칠석(七夕)이 칠성(七星)이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면 칠석이고 그 도리를 알면 칠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견우와 직녀도 그렇게 만나지 못해서 애를 쓴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랬죠. 안 그렇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셔야죠. 허허허.

대중 예!

큰스님 그런데 우리가 일 년에 한 번이라 하는 것도, 여기서 생각할 때는 일 년이지만 그 별성에서 생각할 때는 일 초, 하루를 뜻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그 수명이 일 년이면 거기서는 하루라고 볼 수 있겠죠, 비유를 한다면. 아무튼 여기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지어 놔도 해당이 되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표현이다, 방편이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년, 하루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동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체 사생(四生)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모든 만물만생이 다 견우 직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 있으면 인간이 있듯이 모두가 이렇게 인연이 돼야 생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안 가십니까? 이 모두가 인연이 없으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될 수가 없고요. 창조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으면 칠성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된다. 칠성 부처님이 명을 또는 생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소임을 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석(七夕) 날은 칠성(七星)이 되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밝힌다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을 밝히지 않는다면 백종에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목련 존자를 비유해 놨을까? 목련 존자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도 열반의 구경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지옥문을 열지를 못해서 어머니를 건지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가서 부처님한테 구해서 다시 정진하라고 그래서 다시 정진해서 지옥문이 스스로 열렸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칠석이다 하는 날은 '항상 나한테 숨어 있는 그 마음, 깊숙하게 들어 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라.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깨달아야만, 칠석에 깨달아서 칠성이 돼서 그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뜻이죠.

백종은 아침과 저녁 이것이 한데 모아진 한 마음입니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산 중생이나 죽은 중생이나 할 것 없이 일체 만물만생의 모든 영령들을 건질 수가 있는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도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려야 건질 수가 있지, 깨달음에 의해서 문이 열리지 못하면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북하면 백종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백종을 그냥 돈이나 갖다 놓고 영령들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지 마십시오. 스님네들의 힘을 빌려서 한다 하면은 스님네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 상대방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야 한마음이 돼서 건져지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둘로 보고 '이 봉투에다 돈이나 넣어서 이름이나 써서 갖다 놓으면 영가가 천도된다.' 이런 생각은 아예 마시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 내 육의 조상들이 둘이 아니라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비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과 내 부모들의 조상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거를 맡겨 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그게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조상들의 마음도 내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게 탄생이 되든지 승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깨달아야만 된다.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이 흩어지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부모와 일체제불과 모든 일체 중생이 다 한마음 속에 있다. 한마음 속에서만이 빚어진다.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이 전체 한마음에서 들이고 내진다." 하는 거를 강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에도 그 마음을 내 한마음으로 하나 되게 넣는다면 둘로 봐지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부모들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의 자기 마음을 훤히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도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툭 터져서, 삽시간에 물리가 터져서 승천을 하는 겁니다. 칠석이 그런 마음의 도리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갖다가 산더미같이 쌓아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게 공한 도리를 모른다면 아예 불도 밝게 일어날 수가 없거니와 조상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서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데도 아까 견우와 직녀 얘기 했는데 그게 납득이 됐습니까? 하하하. 여러분이 다 견우와 직녀라고요. 딴 데,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견우와 직녀고, 견우와 직녀는 그렇게 울고 그렇게 사연이 많다지만 그 만남도 즐겁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즐겁지 못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고, 허허허. 그건 그렇게 해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견우와 직녀 속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견우와 직녀 속에서도 벗어나게.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그냥 훌렁 벗어나게끔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도 아침 저녁이 한데 모아져서 공해 버렸다. 공했으면 그 공한 도리를 알 때는 그냥 무(無)다. 무조차도 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도리를 알았을 때는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나가는 데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산 것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저절로 나옵니다.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고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우리가 지은 거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이 팥이 될 수가 없고 팥이 콩이 될 수가 없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흑인이 흑인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가는데, 까만 초콜릿을 입에 물려 가지고 가는데 너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흑인은 백인을 낳을 수가 없어.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 하나하나 자기가 살아나가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냥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면 좀 감춰서라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감추고 자시고 할 사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 법계에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인데 한마디 더 하자면 독사같이 살면 독사의 무명을 쓰고 나오죠. 지옥이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의 생각과, 말이나 소나 됐을 때에, 속으로는 사람으로 살던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죽으로는 말의 모습을 가졌을 때, 소의 모습을 가졌을 때, 개구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독사의 모습을 가졌을 때, 벌레의 모습을 가

☞ A18면으로 계속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氣gi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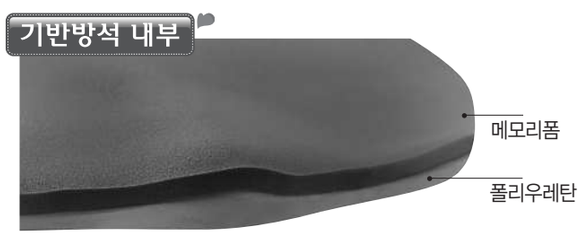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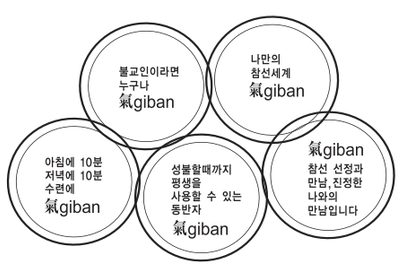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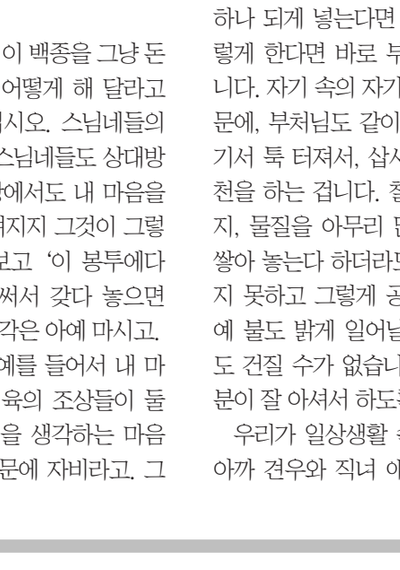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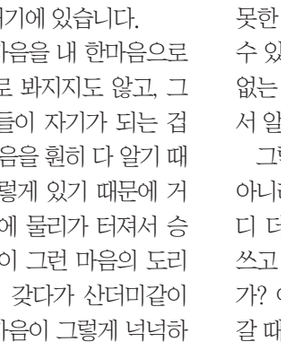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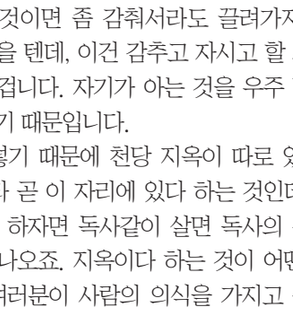
www.hyunbulsho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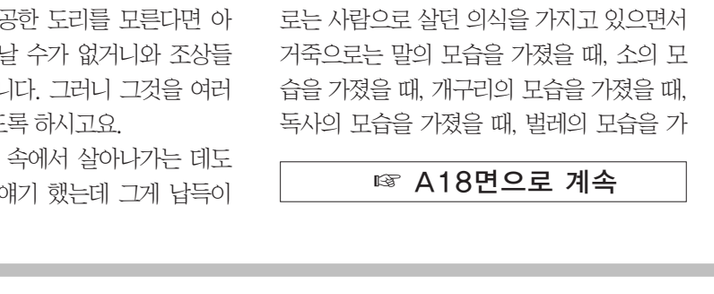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천당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곧 이 자리에 있다!

☞ A17면에서 계속

졌을 때, 가지각색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 답답함이란 어떻겠습니까? 달리 지옥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탄생을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런 말 하는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령들의 의식은 첫째, 살아서 의식을 가졌을 때에 '나'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도 항상 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 데는 자기 몸속의 의식들이 전부, 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깔려 있으니 한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이거야,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강을 사이에 놓고 건너가지 못해, 빠져 죽을까 봐. 그러니까 물가를 뺑뺑 돌면서 오백 년을 돌아도 배가 오질 않아.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바퀴를 넘어서야 될 텐데 뜨거워서 타 죽을까 봐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또한 '나'라는 걸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만 알면 나라는 게 공해 버려서 무조건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모든 걸 팽개치게 될 텐데, 그거를 놓지 못해서 항상 그 업식에 밟혀서 못 나오고, 자기 의식대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못 나오고, 불에 타 죽을까 봐 못 가고 이래서 자기의 갈 길을, 궤도를 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그렇게 넘기보다는 살아서 깨달아야 그게 열반입니다. 살아서 깨달음이 열반이지 죽어서 혼백이 가는 것이 열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열반이란 말도 할 것 없죠. 살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죽으면 살았을 때 그 업식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우리가 발자취를 걸머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 놓고 하나 떼어 놓고, 또 하나 놓고 또 하나 떼어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일체 만법이 다 우리가 걸음 걷듯이 그렇게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항상 얘기해 드리죠, 그렇게 놓고 간다고. 자연스럽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노릇을 하고, 자연스럽게 형님 노릇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니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공한 도리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할 땐 실감이 안 납니다. 자기가 진짜로 지옥고에 들어서 봐야 정말이지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열 아들을 두었는데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얼마나 청개구리 짓을 하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기를 "나 죽으면 산에다 묻어 다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물가로 갈 줄 알고. 그랬더니 돌아가시니까 아이, 살아생전에 영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죽어서나 말을 듣겠다고 아, 산으로 올라가지 뭡니까? 그런데 막내아들한테는 "나를 죽으면 물에다 넣어 다오. 관을 물에다 넣어 다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깐 막내아들이 밤중에 몰래 지게를 대어 놓고는 관을 져다가 강물에 갖다 넣는데 그냥 쩍 벌어지면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뭐,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모조리 죽고 막내아들만 남았는데, 아버지는 죽어서 저승 천자가 되시고요, 아들들은 죽어서 소가 됐어요. 소가 되어서 전부 외양간에 매여 있는데, 막내아들이 꿈을 꾸니까 환경이 그렇게 돼 있더란 말입니다. 꿈을 꾸니깐 "음매" 하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그러니깐 아버지가 있다 하는 소리가 "저거는 너의 큰형이다. 저거는 너의 작은형이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남을 해코지를 하고 그랬으니, 소가 돼서 남의 일을 봐줘야 되고 언짢은 일 한 거를 다 저걸로 갚아야 하느니라." 하더랍니다. 그런데 소 무명을 쓰고 나왔으니 자기는 "음매, 음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듣죠.

실지로 자기가 당해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한 철 날 동안에 열심히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의 원망 같은 거는 하지 않고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으로써 모든 일을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 발견하는 데 지름길입니다. 모든 거 내 탓으로 돌리고 그 한 구멍에, 두 구멍도 아닙니다. 구멍 없는 구멍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면 거기서 일체 만법이 나고, 일체 만법을 거기다 놓고…. 이런 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전체 살아나가는 게 여러분이 살지 딴 사람이 살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다니면서 모든 걸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일도 자기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딴 데서 보태 주거나 뺏어 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齋) 지내는 도리,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저 최 씨라는 분이 천도를 시킨다고 절마다 다 다니면서 해도 천도가 안 되더랍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꿈에 조상들이 나타나서는 보따리를 들고 저길 나가다가 도로 들어오고 도로 들어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내게 온 겁니다, 이제. 그래 지내고 싶으면 거기 깔고 앉았던 방석 있죠? 거기다가 놓고 절하고 가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 그 사람으로서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냥 차려 놓고 지내도 안 되는데 아니, 방석에 그냥 놓고 저 방석에 하고 가라고 이러니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나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 절을 하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오더니만 "아이고, 천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 고마운 사례로 얼마를 갖다가 거기 방석에 또 놓더군요. 그날 저녁에 꿈을 꾸니까 아니, 구름을 타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모시고선 그냥 구름을 타고 다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럭하고 난 뒤에 그 집이, 최 씨네 가문이 일어난 겁니다. 가발 공장을 했었죠. 그래서 아주 그게 그냥 담뿍 그때 일어나서 큰 부자가 됐죠.

> **칠석 날은 내 마음을 모아서 과거 미래를 한데 합쳐서**
> **내 마음에 깨달음을 밝게 가져오는,**
> **즉 광력을 자재로이 쓸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말합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님네들이 절에서 보통 이렇게 차려 놓으면 스님네들이 어느 만큼 차려 놨다는 걸 영령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네들 마음부터 보거든. 마음부터 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상 차려 놓은 거하고 돈 얼마 가져온 거하고 돈 얼마 놓은 거,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알지 뭐, 영명(靈明)하죠.

그러나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 소리는 우주 법계에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깐 상을 안 차려 놨어도 그렇고 차려 놨어도 그렇죠. 모든 게 내 거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데 아니, 그 영령들이 그 스님네들의 마음에 탁 가서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한데 합쳐져도 두드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돼도 줄지 않는다 이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재사 지낼 때, 여기서 천도재를 지낼 때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쌓아 놓고 지내야만 잘 지내 주는 걸로 아니 이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면 '아이, 물건도 안 사는데 돈은 이것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습을, 아까 얘기했듯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독사의 무명을 타고 났거나 또는 어떠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매고 있는 그런 지옥고를 범했을 때, 이 공부 하면서 그것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콩 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 지옥고입니다. 오간지옥고니 하는 것은 땅속에서 파먹고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니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그 마음, 즉 영령을 탁 건져서 내 마음과 둘이 아니게 해 놓는다면 금세 제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형제의 그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가 하면,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건지려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령들의 의식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셔서 천도재를 했으면 아이, 제사(祭祀)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빚 갚아야죠,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못 갚으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 허명무실하게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떡 한 그릇이 되남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들어간들 빗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이라고 하지. 수만 개의 영령들을 한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럭하면 더 집안이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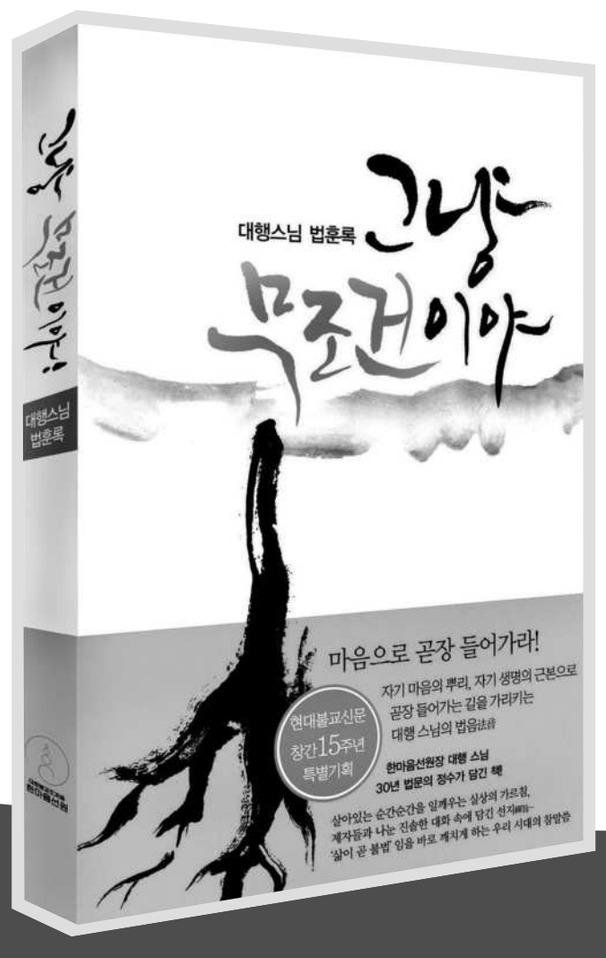
천도를 스님네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 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찹쌀가루를 해서 재사 지낼 때 똥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만 해 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얘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정례(三頂禮)를 할 때에, 맨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어난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떡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물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 그렇게 해서 지내 주고 다녔지.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 무슨 뭘 들고 다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아.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 놓고 해야 하니까 "아휴,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거 해야 하고,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군소리 죄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니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환경위기, 작은 실천으로 넘자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지상관측 이래 '최악 폭염'
중국 · 유럽도 이상고온 현상

바다에 불가사리 방생한
아이에게서 배우는 교훈
작은 노력이 큰 결과 만들어

냉방온도 상향, 대기전력 차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어느 나그네가 이따금 바다를 찾아가곤 했다. 그런데 멀리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가서 보니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계속해서 바닷물에 손을 뻗어 작은 무언가를 집어 들고는, 그걸 다시 바다로 던졌다. 나그네는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얘야, 네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소년은 서서 그 사람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다.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는 거지?"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해도 떴고 이제 썰물이 질 거예요. 불가사리가 죽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말했다.

"그래도 얘야, 바닷가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불가사리도 끝없이 있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니? 해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 일이란다!"

이번에도 소년은 몸을 굽혀 불가사리를 또 하나 집어 들어서 바다로 던졌다. 불가사리가 물에 닿자 소년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저것 하나는 달라졌잖아요."

8월 1일 뉴스에는 서울 39.6℃이고, 강원도 홍천 40.6℃로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1994년 가장 무더웠던 날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초열대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라시아 전역에 '열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불볕더위가 북반구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10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2.5℃였지만 100년 지난 2017년의 경우 24.5℃로 2℃ 상승했으며,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평균기온은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평균 1.2℃가 상승했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에 불과 0.3℃만 남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50년간의 관측된 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맺었으며, WMO(세계기상기구)는 "세계 120곳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평균 농도가 400.0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팽창, 바닷물의 온도상승, 기후대의 사승, 극지방의 빙하가 줄어들고, 해류와 지형, 그리고 지구의 기류의 변화로 인해 지형적으로 폭염과 폭우와 폭설 등 격렬한 이상기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되 사용해도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겨울엔 20℃이하로 사용해야한다. 냉난방 온도를 1℃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 CO_2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라. 엄청난 양의 CO_2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이용해 분리수거만 잘해도 연간 188kg의 CO_2가 줄어든다.

친환경 상품 사용, 환경마크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 등도 CO_2 감소에 효과적이다. 샤워 시간을 1분정도 줄이고, 빨래를 모아서 하는 것도 환경보호 실천 방법이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보자. 음식물 쓰레기만 조금 덜 배출해도 연간 15조원과 CO_2를 줄일 수 있다.

나 하나 바꾼다고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特別寄稿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7월 27~28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21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했다. 3000여 불자들은 무더운 여름을 염불정진으로 이겨냈다. 그 뜨거운 현장의 후일담을 참가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한다. 〈편집자 주〉

무더위도 잊게 한 '염불삼매'



정정식
전국염불만일회 법사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즐겁다. 그 어디론가가 사찰이고, 도반과 함께 수행정진하는 것이라면 더욱 즐겁다.

7월 27일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1차 염불정진대회에 참석 차 제주도에서 아침에 비행기에 올랐다. 화엄의 성지이자 불국토 도량 화엄사에서 열린 이번 염불만일대회는 어느 때보다 뜻 깊다고 생각됐다. 이미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고, 제주공항을 이륙해 광주공항에 도착해서까지 이 느낌은 이어졌다.

공항에서 도반들을 만나 버스를 이용해 화엄사에 도착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었다. 배고픔도 잠시 전국에서 모인 염불만일회 도반들을 만나니 무더위의 고통도 잊게 됐다. 서로 반갑다고 껴안고 악수를 하고 한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화엄원에서 법산 스님의 격려사로 입재식이 시작됐고, 우리는 동산불교대학 집행부에서 계획한 염불행(念佛行)에 들어갔다. 염불행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며 정진하는 것이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란 캐치프레이즈에서 볼 수 있듯이 북과 장구 등을 치며 한바탕 신명을 더하면 어느새 시간이 가는줄 모르게 된다.

사실 1만일동안 염불 정진을 하는 것은 본인과의 인생을 건 약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108배를 생활화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변함없이 외친다.

근 30년 가까이 하나의 수행을 이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도반은 1998년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만일결사에 입재했다. 이날로 7296일이 됐다. 반환점을 돌고 2025년 회향이 몇 년 남지 않아서인지 도반들의 열정은 더욱 높았다.

이번 대회에도 경기도 이천에서 80세가 넘은 도반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5년에는 내 나이도 78세가 되니 사실 평생을 염불정진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무더위도 많은 나이도 정진열기를 꺾을 순 없었다. 우리들의 염불정진은 자정까지 이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과 함께 염불정진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도 적었다.

아침공양 후 휴식 시간없이 염불 정진은 계속됐다. 이날의 수은주는 37℃를 가리키고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그늘 아래 염불 속에 잊혀졌다.

2박 3일간의 이번 염불정진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 해이했던 삶을 되돌아 보며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제주도에서 사찰 안내 봉사를 하며 살고 있다. 이날의 정진을 밑바탕으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이젠 더욱 열심히 불교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외부 필진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社說

불교계 에너지 난민에게 관심을

연일 수은주가 37℃를 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중순까지도 이러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보시행을 펼쳐 청량함을 더하고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8월 초부터 2주간 병원 정문에서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눠줬다. 불교계 병원뿐만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기관들도 다양한 무더위 극복 캠페인과 용품 전달 등을 진행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번 여름은 더 덥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무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더운 방안에서 버티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독거어르신의 소식도 들려온다.

이 같은 이상고온이 매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찰과 불교계 복지기관에서 '에너지 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스스로의 더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부처님이 설한 지혜다. 자비행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자세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려는 불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시혜가 아닌 함께 나누는 여름이 됐으면 한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짜증으로 가득차고 사회의 인심은 메말라 간다. 이럴 때 일수록 이웃을 향한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욱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청년 포교 대축전에 거는 기대

조계종 포교원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와 함께 청년 · 대학생을 위한 포교대축전을 10월 6일 연다. 이른바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와 불교문화체험 마당 등이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9월 말까지 포교콘텐츠를 SNS로 홍보하는 해시태그 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들의 신행생활을 담은 UCC공모전도 열린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미래세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선 대불련과 대불청의 손에만 청년포교를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종단 차원의 청년포교와 장려책도 진행됐지만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포교 전선을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다. 부족한 불교계 재정현황이나 인력 상황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번 청년 · 대학생 신행축제는 포교원과 대불련, 대불청이 함께 연대해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유튜브 등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사찰, 청년회, 종립대학 등과 연계한 대축전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 같은 신행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포교원을 넘어 범종단적 차원서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불교계의 힘이 모자란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다.

한국불교는 오래 전부터 청년층 포교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기까지는 종단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이들을 불자로 이끌 수 있다.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광명선원

www.hanmaum.org

칠석 백중

항상 나한테 감추어 숨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켜서 밝히라는 뜻 입니다.
부처님 마음과 내 조상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내 한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마음을 내는 것이
불을 켜는 것입니다.

• 대행선사법어

칠월칠석 법회

◆ 8월 17일 음7/7 금 오전 10시 30분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부모,가족과 선근인연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밝히며 축원을 올리는 날입니다.
(축원문 접수 – 가족, 직장, 개인)

백중 합동천도재

◆ 8월 25일 음7/15 토 오전 10시 30분

점등식 도량돌이

◆ 8월 25일 음7/15 토 저녁 7시 예불 후

조상님 은혜에 감사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날입니다.
(연가등 접수 – 조상님, 무명영가)

▶ 찾아오시는 길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 광명선원 (光明禪院)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주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번지

함께 사는 세상 꿈꾸는 '밥퍼 변호사'



장준동 변호사는… 1961년 3월 남해에서 태어났다. 진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장준동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이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공동대표와 제53대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연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산밥퍼본부 운영이사, (사) 부산자원봉사포럼 공동대표, (사)부산 장애인재활협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 단장,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학장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제52회 법의 날을 맞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로상,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부터 감사패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그대는 자비보살

장준동 변호사(57 · 법무법인 동연 대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최근 개봉한 영화 '신과 함께2'가 전작에 이어 흥행가도를 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의 웹툰 원작에서는 진기한이라는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그는 사후 세계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망자의 변호를 맡는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의뢰인을 돕는 진기한은 어찌 보면 중생을 위해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룬 지장보살을 닮았다. 진기한이 지장보살을 닮았듯이 진기한을 닮은 이 시대의 변호사가 있다. 그는 마음을 다해 의뢰인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법정 밖에서도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선다. 부산 지역 변호사들로 구성된 '아름다운인연 봉사단'을 창단해 밥 짓고, 밥 나눠주고, 연탄, 김치 배달하는, 일명 '밥퍼 변호사' 장준동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또 다른 세상에 눈 뜨다

장 변호사의 고향은 경남 남해다. 작은 섬 창선도에서 9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났다. 장 변호사의 부모는 장 변호사가 어렸을 때부터 장 변호사에게 어선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가업을 이어갈 것을 권했다. 어린 장 변호사 역시 부모님의 생각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소를 먹이고 어선 일을 돕는 평범한 시골 아이였다. 특별히 입신양명을 위한 뜻을 세울 필요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학업은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랬던 장 변호사의 삶은 어느 날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 장 변호사는 새로운 생각을 품기 시작한다. '삶' 자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삶에는 어촌의 삶 말고도 여러 가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시작은 생물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박정희 前 대통령 시절이었고, 유신헌법 제정과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생물 선생님은 당시의 정국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셨어요.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 때,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속엔 없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세상엔 바다와 어선일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후 장 변호사의 삶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진다. 세상은 넓고 꿈꿀 수 있는 일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금까지의 꿈을 넘어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이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는 방과 후에 소를 먹여야 했어요. 소를 끌고 산에 가서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사법고시 공부할 때 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장 변호사는 그 후 당시 명문고로 이름이 높았던 진주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1986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실력이 곧 자비

장준동, 그가 맡으면 달랐다.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아 온 장 변호사는 뛰어난 직관력으로 많은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했다. 자칫 짓지도 않은 죄를 덮어쓰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뻔 한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장 변호사가 진기한이고 지장보살인 것이다.

최근 장 변호사는 여대생 강간 미수로 구속된 20대 젊은 대학생의 변호를 맡았다. 동기 여대생을 강간하려했던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은 장 변호사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심에 올라온 성폭력 사건을 무죄 판결로 이끌어 내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의 열정과 실력이 만들어 낸 기적이다.

"어린 남자 대학생이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어요. 당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자 측에서 제출된 전화 녹음 자료가 현장에서 조작됐음을 증명했고 술에 취한 동기 남학생에게 돈을 갈취하려는 조작극임을 밝혀냈죠."

장 변호사는 전화 녹음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고, 사건 상황을 재 추적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의심스러운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건 후 재판이 있기 전, 여자 측에서 변호사를 데리고 나와 당시 의뢰인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며 3천만원을 요구했더군요. 조사해보니 같이 동행한 변호사도 가짜였어요. 돈을 먼저 요구한 것과 녹음 증거 자료 조작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증거로 무죄를 주장했고 승소 했죠."

부산 사하구에서 장애인을 위해 교통 봉사를 하던 개인택시 운전사의 억울한 사연도 유명하다. 개인택시 운전사가 지적 장애인을 태워주는 봉사를 매 주일마다 진행했는데, 당시 조수석에 탔던 장애인이 운전기사를 성추행 범으로 신고한 것이다. 1차 재판에서 운전기사는 6개월을 감옥에서 살게 됐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항소했다. 항소 재판에서 피해자인 장애인 여아는 증인으로 참석이 어려워 녹취 자료에만 근거해 1차 재판 결과를 뒤집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재수사를 처음부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장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했고 마을 주민을 상대로 증언을 모았다. 이후 진짜 범인은 집 앞 중국집 배달부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번 사건도 부모들이 합의금을 노린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저는 저를 찾아 온 의뢰인을 최대한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1차 재판에서 구속되면 쉽게 합의하고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끝까지 합의하지 말고 저를 믿어 달라고 하죠. 합의 후에는 평생 꼬리표처럼 강간 미수범 혹은 성폭력범이란 죄목이 평생 따라다니게 되기 때문이죠."

B2면에 계속

나와 모두 위한 변호사의 길

중학교 은사 만나 공부 시작
1986년 사법시험 통과, 개업
형사 사건 다수, 무죄입증 달인
"의뢰인 무한 신뢰가 승소 비결"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선종과 송나라 사대부

B5 문화
김영택 펜화전 · 코리아로투스 伊공연

B6 학술 · 문화재
'불교배척', 근대 기독교 선교 전략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에서 무료급식 봉사하는 장준동 변호사(왼쪽 두번째)



장준동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연탄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없도록 최선"… 봉사는 나의 삶

'장준동 변호사' B1면에서 계속

감옥에 갇힌 극한 상황에서도 구속된 피고인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항소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물었다. 장 변호사는 "신뢰"라며 "저는 의뢰인이 무죄라고 말하는 진술을 믿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자신이 의뢰인을 믿는 만큼 의뢰인에게 변호사인 자신을 믿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는 "최선을 다해 증거를 찾을 테니, 진짜 무죄라면 합의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했고,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무고한 중생을 구하는 자비심의 발휘는 진심어린 마음과 실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실력을 갖추기 못하면 아무리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자비심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장 변호사가 어렸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야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실력을 갖춰야 했다.

대중과 함께 하는 변호사

장 변호사는 삶의 최종 목표로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매 순간 찾으며 살아왔다. 그는 2011년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 된다. 회장으로 선출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대중과 가까워지는 것이었다. '변호사'라는 다소 높게 인식되어온 '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 하는, 아니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당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이익과 영리만을 추구하며 견고한 자신들의 성을 구축한 이익 집단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중에게 먼저 다가가는 변호사로, 열린 마음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 변호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봉사'였다. 그는 2011년 8월 20일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을 창단했고, 소속 변호사, 그의 가족들과 함께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부산 시청에 위치한 녹음 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했다. 무료급식 뿐 아니라 연탄 배달과 김치나눔 활동까지 담당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동했다.

봉사단은 창단 당시 참가한 변호사만 170명이었으며 사무직원 50명 등 220명으로 구성됐고 가족들도 동참해 화제를 모았다.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의 봉사활동은 전국변호사협회에서도 모범이 됐고 전국에서 유일한 변호사 봉사단체로 주목을 받았으며, 봉사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소속 변호사들은 솔선해 먼저 나눔을 실천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봉사가 주는 의미를 알게 된 것이다.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중에는 기부금이 1억 7천만원이 되는 변호사가 있고 부산 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그 후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을 모아보니 17억이 넘었어요. 나눔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변화를 체험하고 스스로 실천한 나눔이라 더욱 기뻤어요. 함께 참여한 법조인들이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활동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은 단체를 만들기까지 장 변호사의 모범적인 꾸준한 활동과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를 따라 일군 결과였다. 그의 숨겨진 활동으로는 노동자 부당해고와 부당전직 구제 활동, 개인택시운전자를 위한 면허 취소 구제활동, 여성 인권을 위한 자문활동, 마을변호사 및 성폭력 무료 상담까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불국토 꿈꾸며 '봉사'의 길

2011년 부산변호사회장 선출

특권의식 버리고 대중 속으로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창립

변호사 170명, 총 회원 220명

전국 유일의 변호사 봉사단체

재가불자 위한 불교운동도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리반 수료

"공부한 것 실천해야 참 불자"

보이지 않는 곳, 숨은 봉사

노동자 부당해고 · 전직 구제

택시운전자 면허취소 구제활동

여성 인권 자문, 성폭력 상담

마을변호사 등 다양한 봉사

장 변호사는 철저하게 특권 의식을 버리고 먼저 대중에게 다가갔다. 장 변호사가 자신이 받은 많은 표창장과 상패들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 어린이 후원재단에 10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하고 받은 감사패였다.

"종이로 제작해 만든 이 작은 감사패가 사실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화려함보다는 10년이란 세월이 담겨 있는 이 상패가 저를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며 같은 동료인 변호사들이 함께 보람된 삶을 살도록 도와줬다면, 그것은 분명 보람된 삶이겠지요."

재가자 위한 '대중 불교' 앞장

장준동 변호사의 불교는 모태였다. 하지만 그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부터였다.

"부모님의 불교를 보면서 자랐지만 그때까지 사실 무늬만 불자였죠. 경전 하나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였죠."

장 변호사는 2010년 도반의 권유로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리반에 입학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 장 변호사는 본격적인 불교공부를 이어가며 더욱 불교의 위대함을 깨달아 갔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반 재가자를 위한 전문 공부처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수재라는 칭찬을 받으며 자란 그였지만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웠다.

"한번은 〈대승기신론〉을 배웠는데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고 쉽게 설명해주시길 요청했지만 법사스님은 '경전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 답하셨어요. 또, 작은 예로 '대선사'라 불리는 어느 스님의 법회에 참석했는데 재가자 500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선문답을 하시더군요. 황당했죠. 어려운 걸 알기 쉽게 가르쳐야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장 변호사는 재가자 교육에 있어서 재가자와 거리가 먼 지금의 교육법은 문제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 변호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곳이다"고 말했다. 그 이유를 묻자 "재가자를 위한 대중 불교의 포교현장으로 가장 적합하고 불교 대중화의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했다.

"평균 200여 명, 많을 때에는 300여 명이 등록합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대단히 중요한 포교활동처입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포교를 위해 불교문화포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문화포교로 눈높이 교육을 강조하며 지난 해 처음으로 불교문화학과를 개설하고 불교문화포교사를 배출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 변호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진행하는 불교문화포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는 1기 졸업생이자 불교문화포교사 민간자격증 1번을 취득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13년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포교봉사단 단장, 2015년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부학장을 담당하고 지금도 부학장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에는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이끌었다. 포교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장 변호사는 '포교법사단'이라는 명칭을 포교봉사단으로 바꾸고 '봉사하며 나누는 삶'을 강조했다. 배운 것을 실천해야 공부의 완성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불교대학을 찾는 불자들이 배운 것을 꼭 실천해 나눔으로 회향하길 바란다"며 "그러면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겠지요? 어릴 때 꿈꾸던 그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다름 아닌 '불국토'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송 사대부 선문화 탄생 주역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⑭ 선종과 송나라 사대부



그림 · 강병호

송대의 사대부들은 당의 사대부들이 행하던 선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계승하고 확장 발전시킨 이들로서, 선종과 밀접한 교유를 유지하면서, 중국 선종사에서 선문화라는 하나의 장르를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특히 송대 사대부들이 참선을 배우고 선승들과 교유하는 것은 당말 오대에 들어서 이미 하나의 풍조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송대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누렸다.

선종은 중국불교를 대표하는 주류 종파로서 불교의 중국화에 역사적 임무를 철저하게 완성하면서 사상 · 언어 · 시가(詩歌) · 예술(藝術) 등 각 방면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선종은 당 중엽 이후 중국에 보편적으로 유행했는데, 근본 원인은 선오방법(禪悟方法) 및 선법을 전하는 풍토 등이 중국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중국 전통문화 중 하나인 유가(儒家)의 심성(心性)수양은 밖으로 드러내는 수양이 아닌, 내적으로 도덕적 수양과 인품을 닦고, 인격적 소양을 쌓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종에서 주장했던 이심전심의 수행법과 맞아 떨어졌다. 송나라 사대부 문인들과 선승들의 교류가 유행했던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선법에서 추구하는 깊은 내적 깨달음과 유교의 심성수양의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송대 이후로 유행하기 시작한 삼교일치(三教一致)사상도 사대부가 선법에 눈을 뜨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국의 유명한 불교학자인 황하년(黃夏年) 선생은 송대 사대부들이 선종의 참선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다.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송대는 매우 불안한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송대는 중국봉건사회가 재차 새로운 길로 접어든 시대로서, 이 시기의 송대는 밖으로는 서하(西夏), 요(遼), 금(金) 등 소수민족 정권들의 위협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매년 대량의 국고를 서하(西夏), 요(遼), 금(金) 등 소수민족 정권에게 보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국고는 날로 줄어들고 국력은 날로 빈약해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백성들도 생활고에 허덕이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안으로 통치자들은 당나라 말엽 오대십국들의 군벌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실행하였고, 통치계급의 내부에서는 서로 간의 파당정치로 인해서 몹시 혼란스러웠다. 파벌 간의 정치투쟁은 매우 참혹해서 사람들 스스로조차 보호하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송대의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이상이 현실 앞에 무너지면서, 그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들은 당의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선종에서 그 해법을 찾아냈다. 즉 그들은 선종에서 일종의 정신적인 만족감 내지 심리적 안도감을 얻었다. 이들은 세속의 번뇌 가운데서 일종의 해탈할 기회를 찾았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들에게 있어서 선종은 잠시나마 현실을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이러한 심경을 왕안석(王安石)은 자조적인 시로써 그의 심경을 표현했는데, '신여포말역여풍(身如泡沫亦如風), 도할득도공일공(刀割得塗共一空), 연좌세간관차리(宴坐世間觀此理), 유마수병유선통(維摩雖病有禪通)'라 했다. 이러한 송대 사대부들의 간파홍진(看破紅塵 · 세상을 달관하다)을 통한 참선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는 그 후 중국 사대부들의 전통이 되기도 했다.

선종은 중국불교 주류
중국문화 전반에 영향

두 번째는 송대가 전제정치 통치시대로서, 사상적 영역은 유 · 불 · 도의 사상적 융합으로 형성된 이학(理學 · 신유학)을 관방의 통치사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이학(理學) 중에서 봉건시대의 충효 논리인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사회의 중요한 지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유학은 중국 사대부들의 정신적인 근간이며, 지속적으로 중국 사회의 사상적 주체가 되어 왔다. 장기간 유교가 발전하면서 각 시대 통치자들은 유교의 윤리사상을 통치적 이념으로 삼았다. 공맹사상은 오직 입신양명에 기반했고,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유교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특히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사상 및 문헌을 탐구해 온 송대 사대부들의 지적 수준은 유교와 도교 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높은 의식 수준과 현실적 딜레마를 함께 품고 있었다. 때문에 현실을 초월하고 공맹사상을 뛰어넘는 '선법'이야말로 송의 사대부들에게는 새롭고도 신선한 사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참선은 또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지혜의 눈을 개발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다른 각도에서 펼칠 수 있는 좋은 길잡이 혹은 소재가 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선종의 핵심적 개념 중에 하나인 즉심즉불(卽心卽佛)은 자성의 특징을 계발해서 세상에 드러내어 본심을 계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이다. 즉 선종은 이러한 법문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발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사대부들 역시 대체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나름 문화소양이 풍부하다고 자부하였다. 따라서 선종이 표방했던 선풍은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방향 및 개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며, 선종의 정신을 통해서 사대부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선종에서 강조했던 '돈오경계(頓悟境界)'는 그들의 문학예술 및 심미(審美)적 세계에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송대 선종의 고승들은 보편적으로 사대부 문인들과 밀접한 왕래를 하였고, 서로 상통하는 점을 주목해서 유불도 합일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많은 유학자들이 선종의 사상이나 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모방하여 자신들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하면서, 중국의 전통사상은 새로운 변신을 통한 새로운 사상적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송명 이학(理學)의 탄생이다. 특히 불교의 심성론을 유가에서 흡수해서, 유학의 심성론으로 재정비하면서 이학(理學)으로 발전시켰다. 초기 이학(理學)의 심성론은 선종의 심성론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론적으로 빈약했다. 중국 문학도 또한 선종의 영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학의 지평을 열게 되었다.

네 번째는 '송대 사회의 풍토는 이미 선종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일반 백성은 물론, 위로는 황제와 조야의 사대부들 중에서도 입선(入禪)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황제 가운데 송 태조, 송 태종은 불교를 신봉하였고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했다. 사대부 문인들 중 송인종(仁宗)은 일찍이 〈투자의청선사어록(投子義靑禪師語錄)〉을 열독하기도 했으며, 송신종(神宗) 역시 선에 심취했다고 한다. 송효종(孝宗 · 1127~1194)은 대혜종고에게 선도(禪道)의 이치를 묻기도 했다. 이외도 사대부 관료들을 살펴보면, 구양수 · 소동파 · 왕안석 · 주돈이(周敦頤) · 정이(程頤) · 주희(朱熹) 등은 일대의 대문호이며, 대유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선사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유했다. 특히 주돈이(周敦頤)는 일찍이 황용해남(黃龍慧南)을 참알하기도 했으며, 매당조심(晦堂祖心)에게 도를 묻고, 불인요원(佛印了元)을 참배하고, 동림상총(東林常總)선사에게는 사사하기도 했다. 정이(程頤)는 영원유청(靈源惟淸)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자주 서신으로 왕래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구양수(歐陽修 · 1007~1072)는 한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유교의 입장에서 〈본론(本論)〉을 지어서 불법을 훼방하고 선승을 공격하고 폐불을 주장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계숭선사(契嵩禪師)가 이것을 목도하고 이러한 작풍에 대적하기 위해서 유불도 삼교의 합일사상인 〈부교편(輔教篇)〉을 지어 반박해서 정(正)을 가렸다. 구양수가 이 책을 보고 자기의 배불관점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계숭 스님을 칭찬하기를 "뜻밖에 승려 가운데 이러한 용상(龍象)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후일 의관정제하고 계숭선사를 참방하고 본인을 일깨워 주기를 청했다. 후일 여산동림원통사(廬山東林圓通寺)의 조인거눌(祖印居訥)선사를 만나서 선학을 담론한 후에 크게 깨닫고 돈독한 불자가 되었으며, 자칭 육일거사(六一居士)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 원본화상(元本和尙)의 〈총림변영편(叢林辨佞篇)〉에 보면 송대 상층 관료이자 사대부인 부필(富弼), 양억(楊億), 이준욱(李遵勗), 양걸(楊傑), 장육영(張育英), 장구성(張九成), 이병(李邴), 여본중(呂本中) 등은 모두 일찍이 선학에 심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벼슬을 하면서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이들이 선승과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 〈등록(燈錄)〉, 〈어록(語錄)〉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으며, 특히 사대부인 양억(楊億 · 종경록 서를 쓰기도 했다)과 이준욱(李遵勗 · 진종의 부마)은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을 편찬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다. 양억(楊億)은 진종(眞宗) 때 한림 학사였고, 또 다른 벼슬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준욱(李遵勗)은 부마로서, 두 사람은 임제종의 승려인 광혜원련(廣慧元璉)과 곡은온직(穀隱蘊職)과 밀접한 관계였다. 특히 인종(仁宗)에게 〈천성광등록서(天聖廣燈錄序)〉를 짓게 권하기도 했다. 소동파는 당대의 대문호로서 시(詩), 서(書), 금(琴), 화(畫)를 뛰어넘는 걸출한 문인이었으며 불학에 깊이 심취하기도 했었고, 선승들과도 깊은 교류를 하였는데, 그 중에 특히 불인선사(佛印禪師)와는 아주 밀접한 사이였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는 어록 등에도 많은 서(序)와 선시를 짓기도 했다. 그가 지은 선시 중에 계수천중천(稽首天中天), 호광조대천(毫光照大千), 팔풍취불동(八風吹不動), 단좌자금련(端坐紫金蓮)과 계성진시광장설(溪聲盡是廣長舌), 산색무비청정신(山色無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등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선시이다. 이러한 현상은 송대 선종이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으며, 송대 사대부들이 선승과 교유하는 풍토는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사회적 풍조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송대 선종은 각계각층에 영향을 주지 않은 곳이 없었다.

송대의 선종과 문인사대부들의 밀접한 왕래는 유불도 삼가의 사상을 교합해서 사상적으로 융합을 촉진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유가학설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기도 했으며, 송명이학(理學)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많은 유학자들은 불교의 사상적 교리체계 및 선종 사상을 토대로 유학의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이로써 중국 전통철학은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즉 역사적으로 명명되어진 송명이학(理學)이다. 한편 송대의 사대부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선에 대한 관심은 문학에서도 꽃을 피워 송나라의 독특한 선문화라는 새로운 풍토를 열기도 했다.

〈동국대 강사〉

2018년 백중기간 5% 특별할인(8월25일까지)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회계 감사보고 결과
지급 여력 비율(100% 이상) ·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 업체 공개

BTN 불국토상조는
불자님들을 위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입니다



상담 및 가입문의 1577-7675

불교의 전통 그대로
- 입관시 스님의 시다림
- 제단에 불교식장엄번 설치
- 불경수의 제공
- 지장보살상 위패 제공

불교TV의 안전성으로
- 불교TV자회사 (주)불국토에서 운영
- 해약시 환급율에 따른 환불(만기 1년 후 100% 환급)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서울-2001 제68호)
- 선불식 할부금 예치기관(국민은행)

거품없는 가격으로
- 매월 3만3천원의 합리적 가격
- 물가 상승시에도 추가부담 없음
- 부부형 가입시 할인혜택
- 묘지/납골당 저렴하게 이용

전국어디서나 편리하게
- 전화 한통화로 임종에서 장지까지 원스톱서비스
- 전문장례지도사 24시간 대기
- 회원권 누구에게나 양도 가능(단 부부형 제외)
- 전국 어디에서도 서비스 가능(단 도서지역 제외)

BTN 불국토상조
● 당사는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고객 환급 의무액 10,286,288,045원, 상조 관련 자산 15,736,255,734원입니다. ● 대표이사 : 구본일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홈페이지 : ww.btnlife,co.kr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68호



이번주 베스트불서 1위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법사(前 홍익대 공대 교수)가 지은 이 책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空), 불이(不二) 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한 체험을 통한 설법집이다.
난민이 된 청년들, 노인 빈곤층, 고독사 증가, 인구감소로 암울한 미래, 대량실업과 해고위기 등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현 시대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 ~ 8/2 운주사 집계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스님/배종훈	민족사
2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	불광출판사	7	'초기불교 열반이란 무엇인가 (열반, 납바나, 니르바나)'	정명스님	푸른향기
3	그대는 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8	골프 공과 선사 (불교의 공에 답하는 골프 이야기)	도범스님	조계종출판사
4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9	"달마어록 (오성론, 혈맥론, 파상론, 이입사행론, 안심법문)"	성열스님	문화문고
5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 체크카드)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10	위빠사나 명상일기	영선	운주사

꺼지기 쉬운 빛 찰나적 깨달음 소설화



꺼지기 쉬운 빛

이갑숙 지음/얘기꾼 펴냄/1만 3500원



"고통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제 2회 법계문학상 수상작 〈꺼지기 쉬운 빛〉은 삶의 빛을 발견하기까지 지난한 여정을 거친 주인공이 마침내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이야기다. 빛은 삶의 목표이며 희망이다. 사막과도 같은 삶, 칠흑같은 밤길을 걷다가 저 멀리서 흐릿하게 빛나던 불빛을 대면했을 때 밝음의 순간은 오래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 밝음에 익숙해져 당연시하고 또 누군가는 절대로 잊지 못할 고마운 것으로 기억한다. 청춘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아온 주인공이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발견한 그 빛, 그것은 무엇이며, 그는 어떻게 꺼지기 쉬운 빛을 지켜갈지 작가는 이야기한다.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명성 스님의 서원으로 제정된 불교문학상이다. 불교와 문학이라는 두 개의 명사 중에서 선행된 명사, 불교는 문학을 수식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므로 〈꺼지기 쉬운 빛〉을 단순히 불교적 소재를 다룬 종교소설로 분류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 맺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인생 후반에 들어선 한 남자가 써 내려간 자기 고백이다. 전문적인 글쓰기 교육 한 번 받은 적 없는 작가는 5년간 공을 들였고, 그 결과 법계문학상이라는 작지 않은 영예를 얻었다. 그렇다면 쟁쟁한 후보작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이 작품에 주목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작가는 유년을 가난에 찌든 시기였다고 회상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고, 어린 시절을 함께한 두 친구와의 우정은 어그러져 돌이킬 수 없는 오해와 질투로 변질됐다. 세속적 욕망과 비루함으로 무장한 채 살기 위해 달려왔던 길을 이제야 뒤돌아본다. 그것은 무명 속을 헤매던 어둠의 세계였다. 더 이상 미래는 없어보였고, 주변이 온통 어둠이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고통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한 어둠과 고통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이 책을 끌고 가는 힘이었다.

고통을 마주한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린다. 자신이 누구이고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끝없이 찾아다니던 중, 먼 나라로 떠난 트레킹에서 드디어 한줄기 빛을 발견한다.

"짙은 안개를 뚫고 한줄기 빛이 내리비치더니 안개 너머로 잉카의 유적이 드디어 속살을 드러냈다. 아, 순간적으로 울림이 왔다. 숨이 멎었다. 생각이 멎고 마음이 정지되는 무념의 순간이었다. 깨달음이라기엔 너무 얕은, 그러나 어떤 알아차림이 한줄기 빛과 함께 내게 다가왔다. 맑고 투명한 빛이었다. 해맑은 어린 아이의 눈빛 같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빛이었다.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그가 찾은 빛은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는 순수한 상태의 빛, 모든 것이 분별심으로 갈라지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의 빛이었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래서 낯설기도 하고 낯설지 않기도 한 태초의 빛. 무명을 벗겨내는 지혜의 그 빛을 그가 찾아내고야 만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이었고 그 빛을 통해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꺼지기 쉬운 빛. 깊은 바다 같은 평온함이거나 어머니 품속 같은 아늑함에 전율하던 순간도 잠시, 그러한 깨달음은 찰나에 불과해 금세 꺼지기 쉬운 빛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 빛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쉬이 꺼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온갖 환상이 주는 분별로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그러나 마음의 눈이 뜨이면 분별이 주는 무명에서 벗어나 그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그런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늘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어느 하루는 이제, 여느 하루와는 다른 일상이 될 것이라고…"

'순간의 빛' 이지만 그 빛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의 인생은 빛을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이며 우리 각자는 나름의 방법으로 깨달음의 빛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한다. 어리석음의 환영에서 벗어나면 깃털처럼 가벼운 자유가 찾아온다는 그의 말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꺼지기 쉬운 빛' 을 놓치지 않으려 오늘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이 책을 펼쳐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아도 좋겠다.

장영우 평론가는 이 책을 이렇게 해설한다. "이 책의 독특한 점이 한국 불교소설의 새로운 이정(里程)이 될지 또는 작품의 미숙성을 증거하는 지표로 지목될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소설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작품이 한국 불교소설의 유형화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교와는 특별한 인연이 없던 작중인물이 친구와 아내를 잃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다 사찰을 순례하며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꺼지기 쉬운 빛' 의 찰나적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다소 거칠지만 진솔하게 서술된 이 소설의 서사전략 또는 구성과 관련된다"라고.

이 책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던 것은 저자가 불법(佛法)을 만나 귀의했기 때문이다. 이 작가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절에 가자' 는 아내의 그 말 한 마디가 없었다면 이 작가는 아마도 지금처럼 불법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말 한 마디가 많은 불연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아내의 불연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사는 듯해도 정작 알고 사는 것이 없는 것이다. 각자의 삶이 누군가의 말 한 마디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 책 속의 문장 하나하나 역시 누군가의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많은 불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경남 함안 출생인 저자의 불명은 덕산(德山)이다.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 년을 공직에 몸담았다. 퇴직 후 늘그막에 글 쓰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2017년 법계문학상 공모에 장편소설 '꺼지기 쉬운 빛' 이 당선되었다.

"자신 가치 발견하면 용기 생겨"… 카이스트 스님의 행복론



있는 그대로 나답게

도연 스님 지음/특별한서재 펴냄/1만 4천원

이 책의 저자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 스님' 이라고 불리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를 꿈꾸며 KAIST에 진학했다가 1년을 공부하고 돌연 출가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카이스트를 졸업했다. 도연 스님은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던 그 길에선 자신이 행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출가하여 탁발과 참선, 마음 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수행해 왔다.

이 책에는 그동안의 수행과 공부를 바탕으로 나답게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 삶을 철학으로 진단하고 명상으로 치료하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책에 실린 성현들의 존엄한 가치와 철학적 개념을 곱씹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주체로서 나만의 철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최고의 휴식인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오늘 하루 좀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이다.

저자의 내공이 쌓인 책 속의 법문만 곱씹어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하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용기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나를 찾는 질문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답을 구하면 됩니다. 빠른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느린 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겠죠. 적극적으로 나를 파고들며 본질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철학을 갖추는 과정이고 명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철학이 진단이라면 명상은 치료 방법입니다. 철학적 개념을 통해 삶에서 당면한 고통의 문제를 알고 혜안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상과 수행을 통해 삶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 전체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선오후수(先悟後修)라 하는데요. 먼저 이치를 안 후에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저자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명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우리는 이미 삶에서 명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내게 생긴 문제를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명상을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는 존재만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나로 살기로 한 결심한 순간부터 몰랐던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라고 **김주일 기자**

安般守意經

선 수행자라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

안반수의경

불교 수행의 근본이 되는 수식관을 상세히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난다!

안세고 漢譯, 석법성 역주 / 신국판 양장
240쪽 / 값 14,800원 / 운주사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방법론과 더불어, 저자가 그동안 위빠사나 수행을 해오면서 겪은 경험들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선 지음 / 국판 / 304쪽 / 값 15,000원 / 운주사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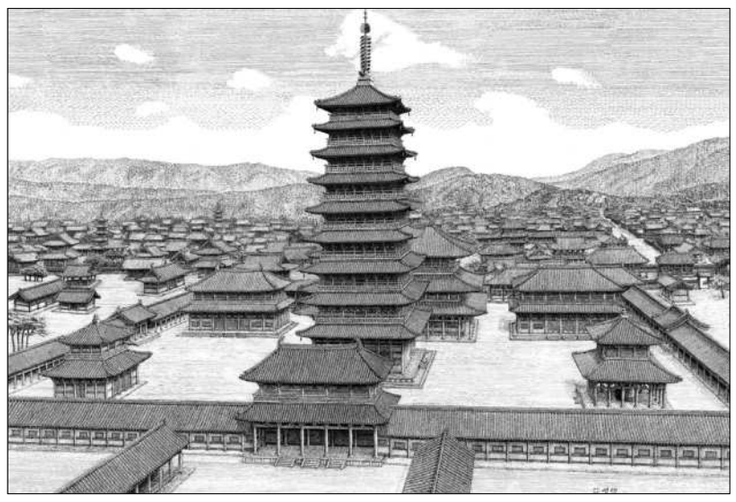
풍경소리 5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영원히 다시 마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 이 생을 소중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는 지혜!

글 풍경소리, 그림 조병완 / 컬러 / 136쪽 / 값 13,800원 / 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김영택 作, 황룡사 전경 복원화

우리문화, 우리불교 해외로, 해외로…

해외 문화불사 현장

김영택 펜화 일본 展…도쿄 한국문화원 7.26~8.21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 이탈리아 초청공연 6.27


코리아로투스 합창단이 이탈리아 두오모성당에서 찬불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해외에서 우리문화가 불사가 되고 있는 전시와 공연을 소개한다. 고찰 등 한국의 고건축을 펜화로 그려온 김영택 화백의 첫 일본 전시와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의 이탈리아 초청 공연이다. 김영택 화백의 전시에서는 미황사 대웅보전을 비롯한 한국의 고건축이 호류지 금당 등의 일본 고건축과 함께 소개됐으며,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은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찬불가를 선보였다.

김영택 펜화 일본展

韓日 고건축 펜화 30여 점

김영택 펜화 첫 해외 전시

천년고찰 등 우리의 전통건축을 펜화로 그리며 한국 펜화의 지평을 넓혀온 김영택 화백이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에서 '김영택 펜화전'을 개최한다.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한국 고건축물을 그린 작품 15점과 일본 고건축물을 그린 작품 14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작품을 합쳐 총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7월 26일에 열렸던 개막식에는 구루시마 히로시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관장 등 일본의 문화예술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해 화제가 됐다. 펜화 장르가 생소한 일본 화단에서는 특히 나라 호류지 금당 및 5층석탑 복원도와 오사카성, 교토 기요미즈데라 등 일본 고건축물들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낸 김 화백의 펜화에 감탄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 화백이 일본 고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의 고건축이 우리의 건축과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래전 우리가 일본에 전해준 건축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궁금했던 김 화백은 호류지 금당 등 일본의 고건축물들이 우리의 건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동안 한국의 고건축을 그려온 김 화백의 일본 고건축물 작업은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전시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황사 대웅보전, 황룡사9층탑 복원도, 불국사 대석단, 경복궁 근정전 등 한국의 고건축물들이 일본의 고건축물들과 나란히 전시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일본에는 없는 고건축물 펜화를 통해 일본인들도 몰랐던 고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동시에 일본 고건축이 한국의 건축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코리아로투스 합창단 이탈리아 공연

두우모 성당서 첫 찬불가 공연

인천 법명사 등 8개 사찰 연합

이탈리아에서 우리 찬불가가 울려퍼졌다.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은 이탈리아 삐안카스타냐이오시 초청으로 6월 27일 두오모성당에서 찬불가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탈리아 성당에서 우리 찬불가 공연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 법명사, 제천 노노정사, 시흥 영각사, 송추 보타사, 서울 석가사, 까루나합창단, 아르도르합창단, 동국대 교수합창단 등 8개 합창단 70명으로 구성된 코리아로투스 연합합창단은 이탈리아 성악가들과 한국 성악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공연에서 우리 찬불가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민요, 월드파퓰러뮤직 등을 불러 현지인 300여 명의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와 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지휘자를 비롯해 반주자, 합창단 단원들 모두 한국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공연해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알렸다.

이번 공연은 이탈리아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불자 음악인 이동원, 박성규, 임형주 등 성악가 3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삐안카스타냐이오시 시장과 주요행정직원들은 한국찬불가 사절단인 코리아로투스 합창단을 환영하면서 한 · 이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며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번 코리아로투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찬불가를 비롯한 우리 불교문화가 앞으로 한 · 이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佛法으로 행복 전파하는 비구니 유튜브 스타

보현 스님(부처님마을 주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니며, 늘 행복하게 산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요즘 누구보다 그 행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가 있다. 지난 6월 〈카르마 100일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이하 행복체크카드)〉를 출간한 보현 스님이다. 베스트셀러가 된 〈행복체크카드〉로 요즘 누구보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에 대한 담론과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는 스님은 책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에서도 행복과 참선 등 불법(佛法)을 전하는 스타 스님이다.

BBS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

스님은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행복과 불법(佛法)을 전하고 있다. BBS불교방송의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이다.

"스님의 염불 노래 중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정말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월~수요일(본방 · 오후 5시 20분) 방송되는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는 시청자가 보내온 행복과 삶에 대한 궁금증을 스님이 풀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재방 · 월~수 밤 11시 40분, 삼방 · 목~토 오전 8시 40분)

스님은 "내 생각의 머리, 즉 마인드를 리셋해야 합니다. 깨끗이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하며 나를 신비하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은 부처님 공부밖에 없습니다"고 말한다. 1회 방송 시간이 약 5~10분인 스님의 법문은 좀 더 행복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 현실에 지친 사람들, 삶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금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보현 스님은 유튜브 '마을 부처님' 채널을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한다.

책, 방송, 유튜브서 행복 등 치유설법

BBS '보현 스님의 행복체크카드' 서 행복강의

유튜브 '보현 스님의…' 등 조회수 5천 돌파

유튜브 스타…조회수 5천 돌파

'마을부처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는 보현 스님은 360건이나 되는 꾸준한 업로드를 통해 현재 구독자 5천을 돌파했다. 보현 스님은 유튜브 컨텐츠 '보현 스님의 카르마 100일', '보현 스님의 나는 행복합니다'를 통해 생활, 경제, 사회, 정치,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 주고 있다. 보현 스님 특유의 유쾌하고 명쾌한 설법이 돋보인다.

스님은 "세상이 진화할수록 그에 맞추어 쉽고 빠르게 대중들과 소통해야 한다. 현대의 대중은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신치유법을 원하며, 이를 만족케 하는 수행법을 추구한다."고 자신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래서 스님은 외부에서도 간편하게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 강의를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는 유튜브에서 '카르마 100일'을 검색하면 스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스님의 수행고백서, 행복을 전하다

보현 스님은 학창시절이던 1980년대 남산 길을 산책하다 영화감독의 눈에 띄어 모델로 입문했다. '이경미'라는 예명으로 모델 겸 가수, MC 등으로 활약했다. 스님은 인기 절정이었던 1986년에 홀연히 출가했다. 출가 이후에는 찬불가요를 작사 · 작곡하여 음반을 발표하고 마음 치유 희망 콘서트를 열며 힐링 멘토로 활동한 바 있다.

스님의 책 〈행복체크카드〉는 수행자인 스님의 수행 고백서로, 남은 삶을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생 지침서이다.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도 한 때 죽음을 각오했을 만큼 자신의 삶을 나락 끝까지 내몰았던 스님은 그 수행의 끝에서 얻은 깨달음을 행복 추구의 방법론으로 정립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불교적 치유의 손길을 내민다.

스님은 1999년 자전소설 〈타래〉와 〈너는 부처 해라 나는 중생할 테니〉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2004년에는 몽각산 기슭의 폐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느낀 이야기를 담은 〈부처님 마을〉을 펴냈으며, 2014년에는 출가 인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이룬 수행담 〈땅꽁 스님과 애벌레 선(禪)〉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불교 배척’, 근대 기독교 中선교 전략

주목! 학술서

심장섭의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중국을 공략했는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20년대 중국 베이징대 총장을 지낸 장멍린(蔣夢麟)은 “석가모니 부처는 흰 코끼리를 타고 중국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포를 타고 날아왔다”고 말한 바 있다. ‘대포 위의 예수’는 기독교가 함의한 서구 제국주의 정복자적 면모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15세기 중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며 시작된 대항해 시대에 가톨릭은 해외 선교에 집중했고, 선두에는 예수회가 있었다. 중국에서 활동한 마테오 리치도 예수회 선교사였다. 그의 저서로 잘 알려진 〈천주실의〉는 서사(西士, 서양학자)와 중사(中士, 중국학자)가 대화를 통하여 토론하는 형식으로 꾸며진 가톨릭 교리서다.

하지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는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의 선교 전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 전략은 ‘불교 배척’에 방점이 있다.

불교학을 공부해 온 심장섭 씨는 최근 내놓은 연구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중국을 공략했는가〉를 통해 서구 열강들이 왜 식민지 선교에 집중했고,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마테오 리치의 제국주의 기독교와 중국불교’가 부제인 만큼 주요한 내용은 마테오 리치의 저서와 이와 관련한 분석과 비판 등이 주를 이룬다. 특히, 근대 서구 열강의 정신문화인 기독교가 동양의 식민지화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불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탐구한 결과여서 주목할 만하다.

책에 따르면 마테오 리치는 ‘중국의 신국화(神國化)’라는 거대 목표를 위해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분석
“윤회는 허구” 등 불교 적대화
‘보유척불론’ 내세워 선교 나서
佛·儒, 벽사론 제기하며 ‘반격’
유럽 내 ‘중국 붐’ 일어난 계기

중국의 사서(四書)를 비롯한 중국문화 전반을 연구했다. 이를 통해 마테오 리치가 주목한 것은 상제(上帝) 신앙이 나타나는 고대 유학이었다. 이에 대해 마테오 리치는 “고대 유교 경전에서 나타난 하늘(天)이나 상제는 기독교의 하느님과 동일한 존재였지만, 후대 송명이학의 무신론적 경향과 불교·도교의 우상숭배의 악영향을 받아 무신론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유학을 비판함으로써 유학에 기독교 이론을 침투시키고, 반대로 불교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보유척불론(補儒斥佛論)’의 선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마테오 리치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세계가 이뤄져 있다는 붓다의 공(空) 사상과 고정관념의 우상을 타파하는 선종 사상을 허무주의라고 비난했다. 명말 고승들에게도 근거없는 비난과 비방을 퍼부었다.

저자는 마테오 리치의 이런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마테오 리치의 인격적 유일신의 입론(立論) 시도는 “동양인들의 의식 수준의 퇴행을 부추기는 일이며, 근본사상을 훼손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마테오 리치의 적대감 높은 태도에 대해 당대 불교와 유교는 반발했다. 당시 사대부 등 재가의 선비들과 운서 주굉, 우익 지욱 등 당대 최고의 불교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격, 즉 벽사론(闢邪論)을 제기해 불교를 옹호하는 동시에 기독교 교리의 허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저자는 연구서를 통해 당시의 저술들과 운동을 중심으로 중국 불교계의 벽사운동을 자세히 고찰한다. 마지막으로는 명말청초 예수회의 전체적인 동향을 소개하면서, 그 후에 일어난 유명한 전례논쟁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학문적 전통을 다소 왜곡해 소개한 예수회원들의 저술이 오히려 유럽의 계몽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모집

기본·심화과정 오는 24일까지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에서 오는 8월 24일까지 2018년도 2학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3기 심화과정은 오는 2학기부터 1과목 증설돼 운영된다. 〈불조역대통재〉(박해당, 월), 〈화엄원인론발미록〉(신규탁, 화), 〈동문선소재역대승려시문〉(이상하, 목), 〈증도가주〉(문광 스님, 금) 강의가 진행된다.

학기당 16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치문경훈〉(선암 스님, 월), 〈중론〉(금천 스님, 화), 〈범어-한문 경전강독2〉(현진 스님, 수), 〈조당집〉(박영록, 목), 〈초서〉(양진석, 금) 강의가 이뤄진다. 기본 과정은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으로 나눠 모집한다. 심화 과정과 기본 과정의 강의 시간은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올해 1학기부터 시작한 ‘산스크리트어 문법 스터디’는 2학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스터디 시간은 오는 9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韓美 불교 석학들 간화선 대중화 ‘공감’

동국대 종학硏, 17일 美UCLA서 국제학술대회

제2회 수불학술상 시상식도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미국 UCLA 불교학연구소와 공동으로 7월 17일 미국 UCLA 로이스홀에서 제6회 간화선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선과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10년 대회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학술대회에 앞서 제2회 수불학술상 시상식과 수상논문 발표회가 열렸다. 올해에는 국내외 연구자의 논문 19편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3편의 논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실존주의와 간화선에 있는 불명료함을 통한 도덕적 행위’를 연구한 웬디 L. 아다멕 캘거리대 교수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성은 브리티시 콜럼비아대 교수의 ‘화두 절대주의의 호랑이 길들이기: 의례의 수행과 의례의 경험으로서의 간화선 수행과 그 경험’이, 장려상은 ‘돈오의 기원’을 성찰한 논문으로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덕우 스님이 수상했다.

이후에는 주제 논문 발표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주제 논문 발표회에서는 윤성하 원불교 교무의 ‘현대사회에 간화선 가져오기: 원불교에서 소태산의 간화선 재창조’를 비롯해 박포리 애리조나대 교수의 ‘한국 비구니의 간화선 수행:인홍 선사 그리고 석남사’, 앨버트 웰터 애리조나대 교수의 ‘21세기 선 불교학 서사의 재구축’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종학연구소는 7월 17일 미국 UCLA에서 제6회 간화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자 교수들 ‘한국불교 중흥’ 논한다

교불련, 창립 30주년 맞아 한국교수불자대회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가 현재 한국불교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불련은 오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동안 경주 황룡원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8년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 중흥’을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수불자대회에서는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고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5일 오후 2시 입재식을 시작으로 3시부터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가 ‘한국불교 위기: 조계종 무엇이 문제인가’를 기조발제한다.

이후에는 ‘한국불교 중흥’을 주제로 발표와 지정 토론이 이뤄진다. 주제 논문으로는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한국 현대불교의 종단사와 이념’ △송운석 단국대 교수의 ‘한국불교 종단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성규 영남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위기와 중흥전략’이 발표된다.

지정토론에는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월암 스님, 조계종 前 중앙종회 부의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윤성식 고려대 교수, 이종수 중앙대 교수, 김광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또한, 교수불자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석해 한국불교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중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5~17일 경주 황룡원서
현재 불교 상황 비판적 고찰
교수·승가 참여한 토론 예정
다양한 주제 학술논문 발표도

특별회의를 이후 진행되는 △한국불교 세계화 △한국불교문화 △응용불교 △간화선과 명상 등 분과회의들도 눈길을 끈다. 각 분과회의에서는 조계종의 ‘한국불교 세계화’ 기획에 대한 비판적 논의(우혜란, 서울대)를 비롯해 인공지능 쟁점과 불교(이도흠, 한양대)·판소리 반영된 불교어휘(박환영, 중앙대)·생텍쥐베리 작품에서 불교사상 엿보기(어순아, 성신여대) 등 20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이밖에도 석굴암과 동화사, 경주 남산 산행 등 불교문화유산 탐방과 명상 강연 및 체험, 특별법문(대원정사 주지 청운 스님) 등의 문화·신행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의 차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교수불자대회에 대해 심익섭 교불련 회장은 “‘한국불교 중흥’이라는 주제의 담론화를 통해 한국불교가 어떻게 발전했고, 현재 문제가 무엇이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불교 지성들과 불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강남 봉은사 판전 서울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판전(板殿)이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25호로 지정됐다”고 8월 6일 밝혔다.

봉은사 판전은 추사 김정희가 죽음을 앞두고 ‘판전(板殿)’이라는 마지막 글씨를 현판에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판전이라는 이름은 경전을 찍어내기 위해 목판에 새긴 경판을 보관했기 때문에 붙여졌으며,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 목판을 비롯해 총 15종 3천500여 매의 목판이 보관돼 있다.

봉은사는 “판전은 화엄경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1856년에 창건되고 1879년 중수된 단층 맞배집 목조 건축물”이라며 “고건축의 풍미와 세월의 멋을 보여주는 명승지”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⑮ 최초의 화가 사형수 이규상

그림 수행으로 참회하는 사형수

1967년부터 교화위원으로 600여명의 사형수들을 만났지만 그 중 가장 오랜 인연을 이어가는 사형수가 있다. 최초의 화가 사형수 이규상이다.

구치소 밖에서 시작된 인연

9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빚더미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 씨는 청소년기부터 평택의 폭력조직에 몸을 담았다. 어느 날 문득 그간의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씨는 30대 초반 대구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 씨는 부인에게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불행히도 그의 운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주민등록 이전 절차를 밟기 위해 딱 한 번 다시 찾은 평택서 우연히 폭력조직 후배를 만난 것이 화근이었다. 후배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그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겁박하려 휘두른 주먹 한 번에 상대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진정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그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 살인강도사건에 연루된 이규상은 1999년 9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2000년에 사형수가 됐다.

그로부터 4년 뒤, 나는 여느 때처럼 새로운 교화대상자를 만났다. 반 평 남짓한 독방서 지내고 있는 사형수 이규상이었다. 초면임에도 몇 마디 나눠보니 마음이 확 끌렸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였다. 그를 만나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는 나와 1년 전에도 만날 뻔했던 사이라고 조용히 털어놨다.

20여 년 전 부산 자비사로 나를 찾아온 노보살이 있었다. 서울서 왔다는 노보살은 쓰러지듯 절을 하더니 내게 간청했다.

"저는 죄 많은 늙은이입니다. 제 아들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형수가 됐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제 아들을 한 번 만나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스님을 찾아 왔습니다. 아들놈이 꼭 스님을 뵙고 싶다고 이 어미에게 간절히 청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꼭 한 번만 제 아들을 만나주십시오, 스님"

사정이 어려워 내가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 여비도 준비하지 못했다며 통곡하는 노보살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다. 당시 끝내 연이 닿지 않아 사형수와의 만남은 무산됐었다.

긴 시간이 흘러 만난 사형수 이규상이 바로 그 노보살의 아들이었다. 다시 인연이 이어진 것이다.

참회의 비누불상 그리고 미술

이규상은 수감생활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으로 불심을 키웠다. 빨랫비누를 조각해 불상을 만드는 것도 그의 정진 중 하나였다. 그는 어느 날 비누를 보고 〈지장경〉 내용이 생각났다고 했다. 어린아이들이 백사장서 놀다가 모래 위에 부처님 상을 그리고 합장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된다는 부분이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각한 그의 조각품은 어느새 수십 개에 달했다.



사형수 이규상이 그린 제41회 교정작품전시회 문예작품(수용자) 부문 대상 수상작 '일상2' 70×50cm.

불우한 환경서 비롯된 살인
〈지장경〉 읽고 비누불상 조각
미술교습 받고 그림수행 · 참회
교정작품전시회서 대상 수상

사형수 교화실에 진열한 비누불상 중 몇 개가 내 수중으로 들어왔다. 나는 불상 하나를 서영훈 前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준 적이 있었다. 비누불상을 하나 받은 서 前 총재는 이규상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며 면회에 동행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당시 구치소장과 독대한 서 前 총재가 사형수가 조각한 비누공작품 때문에 구치소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서 前 총재가 돌아가고 감방 안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사형수와 직접 연관된 내부 물품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발각됐으니 당연한 처사였다. 교화실은 물론 독방에 뒀던 모든 공작품을 압수당한 이규상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러던 중 이규상은 2004년, 당시 교화위원인 이인자 경기대 예술학과 명예교수를 처음 만난다. 이 자리서 그는 미술을 전공한 이 교수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거듭 부탁하는 이 씨에게 불자였던 이 교수는 결국 그림 교습을 승낙했다. 이 교수는 계란 100개를 그리는 숙제를 내주면서 "계란을 그리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참선과 통하는 작업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는 매달 한 번 교화실서 교습을 받으면서 교도소 내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인 연필만으로 그림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가 그린 계란 개수만큼 참회는 깊어졌고, 실력도 늘어갔다.

교정전시 출품작 대상 수상

이 씨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지만 사형수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봐야 출품할 수는 없었다. 원칙상 사형수는 사회복귀를 전제로 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수차례 천 일 기도를 올린 끝에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것일까. 기적이 일어났다.

수시로 순시하는 교도관들은 그림 그리는 이규상에 대해 상부에 분명 보고했을 것이다. 규정상 문제될 소지는 있었지만 문제는 생기지 않았다. 소장마저 인정한 이 씨의 빼어난 실력에 교도관들은 사형수가 그린 그림 한 점을 얻고 싶어 할 정도였다. 그렇게 '그림 그리는 사형수' 문제는 넘어갔다. 이규상은 계속 그림을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교전에 출품까지 할 수 있었다. 교정당국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적은 없지만 이규상의 그림 '일상2'는 마침내 제41회 교정작품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합동전시로 피해자 가족 돕고 싶어

이 씨가 대상을 받고 난 뒤부터 다른 사형수들도 그림을 배우는 경우가 하나 둘 늘었다. 역대 교정사상 최초로 이례적인 '화가 사형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화가 사형수 이규상은 언젠가 타 사형수들과 합동전시를 하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합동전시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돕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를 따라 그림을 배우는 다른 사형수들은 억겁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참회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정리=김지원 수습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⑭ 서암스님 · 동네 목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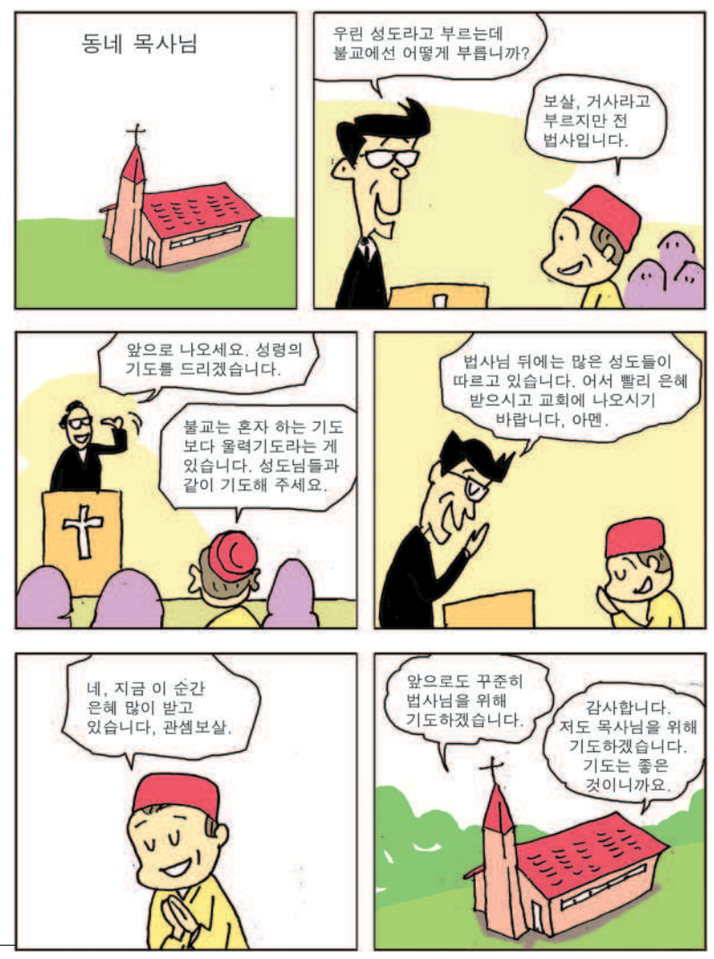
대나무가 수명을 다하면 꽃을 피운다는데, 스님 어디 계십니까?
詩 한 수 올립니다.

꽃물이 진다
잎을 떨구려고

눈물이 마른다
나를 놓으려고

꽃물과 눈물은
꽃으로 찾으라 한다

어느 날 동네 목사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이웃 종교도 또한 이웃 사촌이려니 생각하고 그에 응하였다. 그곳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는 내심 놀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불교에 대한 질문에 아는 대로 대답을 하며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얼마 후, 교회에서 법문(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그 사람들의 전도 활동에 도움을 보탰다. 나 또한 불교를 포교하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





지구, 내 몸같이

내 몸은 지구와 같고, 내 몸속의 생명들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같습니다.
지구는 우리와 함께 돌아가는 생명체입니다.

대행선사 법어



만물만생이 더불어 사는 지구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